



時計塔

SIGETOP



2011년 10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8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文大鈺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盧在煜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The 29th Annual Scientific Convention

2012년 미주동창회 연례학술대회의 일정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고의 호텔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며 반가운 동문들과 영원히 기억될 수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Jan. 20 (Friday) ~ 22 (Sunday), 2012

Hyatt Regency Grand Cypress

One Grand Cypress Blvd., Orlando, FL 32836
Tel: 407-239-1234 Fax: 407-239-3837

2012 Convention Committee 일동

2011-2012 제1차 이사회 초록



일 시: 2011년 10월 1일(토) 오후 6시
 장 소: 풍림식당, Fort Lee, New Jersey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채규철(59) 한기현(63) 추재욱(63) 허선행(64) 권정덕(64) 최준희(64)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광승용(71) 강창홍(71) 강유구(71) 문대욱(73) 서인석(73) 백승원(79) 심인보(83) 이영인(86) Mrs. 석창호(72)

Proxy: 김병석(59) 손영진(62) 김태웅(63) 김택수(63) 조동준(64) 한영수(67) 김병오(69) 엄규동(69) 조영갑(70) 김일영(71) 조세진(71) 김성환(71) 오동환(71) 김유식(71) 박진국(71) 김재석(72) 오용호(72) 고용규(73) 나두섭(73) 한승신(76) 박일우(77) 김동훈(77) 조경구(78) 권오기(78) 장연웅(78) 조형기(92)

1. 성원 점검 후 오후 7시 15분 문대욱 회장의 개회선언 (20명 참석자와 26명-Proxy, 1 명-No Proxy, 7 결직)
2. 2010-2011 제2차 이사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재청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됨.
3. President Report
 - 지난 2개월동안 update한 미주동문 현황, 연령별 분포 등을 보고함.
 - 현 동문회의 member update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특히 조속한 e-mail의 update를 통하여 동창회의 활동과 근황을 회원들에게 수시로 전달할 예정임.
 - 이번 convention 기간 역대 회장단의 간담회 타진: 다가오는 현실에 대응하는 동창회의 진로 설정과 더불어 가능하면 동창회의 연혁(chronicle)작성을 할 예정이다.
 - 새로 동문회 일을 맡으신 Mrs. Jamie Kim, central office manager 노고에 감사함.
4. Committee Chairs Report
 - Fund Raising (추재욱 위원장): 10월 1일 현재 Convention donation \$15,375를 포함 \$28,650의 donation을 접수함. 더욱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바람.
 - Silver Project(한기현 위원장): 내년 잠정적인 Baltic countries 여행계획중임.
 -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서면보고
 더 많은 article contribution이 절실하게 필요함, 이미 e-mail을 통하여서 동문들에게 촉구함.
 - 2012 Convention Committee (권정덕/김재석/서인석 위원장): 서인석 위원장

보고

- * 2박3일의 convention에서 더 나아가 class reunion 혹은 family vacation을 권장하며 또한 동창회의 참석을 늘릴 수 있는 Western Caribbean Cruise를 계획하여 현재 200 여명이 등록했음.
- * 한편 동창회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Convention registration fee를 낮추어 참석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을 가볍게 하여 대 선배님들이나 은퇴하신 분 그리고 새로 출발을 하는 후배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
- Scientific Committee (강유구/한승신 위원장): 강유구 위원장 보고
 - 1월 21일-22일 연례학술대회의 주제는 Geriatric Medicine이며 새로운 시도로 Panel discussion을 통하여 강연자와 참석자의 상호 의견의 교류가 있을 예정이 있으며, Thomas Jefferson University 에서 제공하는 12 hour CME credit는 on line evaluation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음.
 - Non-CME session: (Mrs. 석창호 위원장)
 - Program 다양화를 위해 Cosmetic, 치매, CPR, 골다공증, computer 등 많은 idea로 새 시도를 예정 중이며 아직도 많은 input과 idea의 제공을 환영함.
 - Research & fellowship (조세진 위원장 서면보고)
 - 2011 추천자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인섭(72) 동문 (Tuft Medical School at Boston) 선정됨.
 - Office Management Committee(OMC)-(광승용 위원장)
 - * 8월 28일, Executive meeting에서 OMC와 central office manager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 * 동창회 check는 회장과 재무만이 싸인할 수 있음. Financial transparency를 위해 여러가지 세세한 구상을 하고 있음.
 - * 행정상 편의를 위한 임원진과 office manager의 credit card (현재의 debit card 대신) 취득에 대해 의견수렴 후 승인함.
 - By Law (노용면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Advisory & Exchange (이만택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Scholarship (서인석 위원장)
 - * 작년에는 47명이 응모했었는데 올해에는 12명이 응모했음. 지난 9월 26일 Scholarship committee 모임에서 7명(송관호 장학금 2명, SNUCAA 장학금 5명)을 선발함. 만장일치로 7명을 확정시킴.
 - *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donor들께 감사편지와 tax exempt information을 보낼 것을 다시 강조함.
 - Charity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 * By-law committee 에서 제시한, 모든 charity committee 사업의 집행은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조건하에, 2/3 이상의 BOD 동의로 지금의 Ad-hoc committee에서 standing committee로 승격시킬 것을 건의, 만장일치로 통과됨.
 - * Charity Committee member 임용을 신중히 시작하곤했음.
 - * Fair and balanced committee 운영에 대한 comment가 있었음.
 -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 9월 11일 SNUCAA 장학금 \$10,000 이월 후, 9월 27일 현재 잔고는 \$287,991임 (1월 이후 6% 감소). GUB value로는 \$415,122임.
 - Green Project (이영인 위원장)
 - 보다 나은 Globalization을 위한 activity 계획이 조성되었음.

이사회는 진지 한 토론 속에서도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각 committee의 보고서가 배포 된 가운데 더불어 power point presentation으로 효율적으로 이어졌음.

동창회 부회장이며 뉴욕지구 회장인 백승원(79) 동문의 10월 Golf outing과 11월 Annual Ball에 대한 많은 참석당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committee report를 미리 작성하여 이사회 일주일 전에 각자에게 e-mail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각 위원장에 대한 문대욱 회장의 인사를 끝으로 오후 9:40에 폐회선언함.

기록 : 심인보(83) 재무

회비, 헌금하신 동문 명단

2011년 10월 10일 현재

- 1941 이규용
- 1950 이철남
- 1952 김정준 박종식
- 1956 조동립 신명수 주창준 서상철 박상기
- 1957 윤 찬 이동성 정진복 김양호 임종식 임종원
- 1958 김숙희 이종국 최정희 최창송 박용화 이만택 김부근 이운순 김시한 김기태 김수산 박호현 한영수 유치열 임영신 김백년
- 1959 강재룡 신영철 최용천 김교안 김용덕 반용균 이교락 박선용 김은섭 한달수 김병석 나길진 강상진 박용순 임낙중 한성업
- 1960 김영환 김완주 박춘명 이순환 정낙섭 염극용 한성수 김인환 임필순 이상일 전희근 이덕송 송영조 조재동 임종원
- 1961 장성환 이희경 고의걸 이재승 정철용 이해원 한수용 양명교 정의철 김유홍 이재두 강창욱 계훈택 박승균 황현상 손기용 안창현 김영기 조은순 최공창 최용성
- 1962 김석식 송영두 이기범 이상복 이석우 구정율 오태요 이영웅 박종건 정정수 남성희 박진수 민경환 이상무 김호균 장병호 이용길 정 태 권익현
- 1963 김갑중 추재욱 김태형 윤진수 송용덕 김택수 왕규현 이승현 임춘수 양찬기 이범세 고영희 윤영욱 한광수 조열하 김주응 김현하 김태웅 조한원 박세록 마동일
- 1964 김용두 권정덕 허선행 유창남 박세준 이재풍 정유석 조성준 최준희 이종성 양운택 홍선경 김태환 이주영 유 강 조동준 임병훈 임대묵 신두식
- 1965 서좌일 손광호 이범석 민경택 정길화 채도경 이광선 이한중 박수안 이정의 조성구 채무원 전영균 구경희
- 1966 김충규 한일성 장한교 조의열 민발식 김의신 이명희 이성근 윤명선 조관상 최영자 김우신 조규웅
- 1967 이영균 김성철 유진일 지일성
- 1948 한용현 오동렬
- 1951 이상하
- 1955 노용면 양겨영

- 1968 김 철 박정식 차재철 노영일 송창호 서윤석 안금환 이건일 흥광신 김경인 황훈규
 - 1969 임용규 이충호 신영찬 송용재 최종일 김종권 김홍서 안병일 윤효윤 김병오 김창남
 - 1970 방준재 조남현 박홍식 조영갑 최원일 홍 건 이정길
 - 1971 김효순 강유구 고기영 강창홍 홍성진 배성호 서정자 강태수 김일영 오상현 서상현 장 철 김유식 조세진 이원택 황동하
 - 1972 오용호 장병호 최인섭 이기진 김재석 정희현 이신재
 - 1973 이영복 김정용 나두섭 심완섭 민인기 고용규 방병기 문대욱 오인환 서인석
 - 1974 권철수 김웅진 구재훈
 - 1975 전경배 김자역
 - 1979 백승원
 - 1983 심인보
- 2001년 10월 15일 현재 247명 납부

Convention Donation

최창송(58) \$100	강창욱(61) \$50	추재욱(63) \$2,000	권정덕(64) \$1,000
이재풍(64) \$200	허선행(64) \$500	윤효윤(69) \$250	배성호(71) \$300
서정자(71) \$75	나두섭(73) \$100	문대욱(73) \$10,000	방병기(73) \$200
서인석(73) \$500	민인기(73) \$100	백승원(79) \$2,000	

Donation

노용면(55) \$500	서상철(56) \$25	강상진(59) \$200	황현상(61) \$75
김성철(67) \$75	이건일(68) \$100	차재철(68) \$75	김유식(71) \$175
서상현(71) \$75	최인섭(72) \$200		

Charity

강신호(52) \$10,000	민경환(62) \$100	임춘수(63) \$100	홍선경(64) \$100
최영자(66) \$500	강창홍(71) \$600	조세진(71) \$50	방병기(73) \$100
김웅진(74) \$100	김자역(75) \$100	백승원(79) \$3,000	

Green Project

박준홍(51) \$10,000	김은섭(59) \$125	염극용(60) \$100	한성수(60) \$75
민발식(66) \$100	조세진(71) \$125	서인석(73) \$100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고 박준홍(51)동문 - 지난 8월 6일 별세하신 박준홍 동문 가족이 미주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특히 레지던트로 고생하는 후배들을 위하여 1만달러를 쾌척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병석(59)동문 - 정신과 전문의이며 현 시계탑 편집장인 김병석(59)동문과 그의 부인 임경자 선생이 공동으로 '최면으로 창조하는 삶' 이라는 책을 출판

임낙중(59) 동문 - 임낙중 글 모음 제3집 "인류의 운명" 을 발간했다. 지난 2007년 제2집 "행복" 에 이어 4년만에 발간한 400쪽 분량의 인류의 운명의 책머리에 임 동문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 났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지식 신앙 사상 등에 어쩔 수 없는 여러 계층이 있고 내 글도 그 계층 모두가 동의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내 글을 통하여 나를 알아주는 주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그것으로 보람을 느낄 것이다.... 이 책은 내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내 모든 움직임 하나 하나 뒤에는 아내의 그림자가 담겨있으니 이 책은 아내와 함께 엮은 인생의 여정이다." 이라고 했다.



이재승(61) 동문 - 볼티모어 소재 The Johns Hopkins Medical Institution에서 풀타임 faculty 로 근무하는 이재승(61)동문은 전 병원 faculty들이 추천하여 받는 reward 인 Service Excellence로 선정되어 상금 1,250불과 함께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이 동문은 상금 전액을 소속되어 있는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Critical Care Medicine에 기부하였다.

이원택(71)동문 - 본보 편집위원 이원택 동문의 세상 엮기 시리즈 제4권 "혼미경" 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8월 20일 (토) 남가주의 Arkesia에 있는 가든 뷔페에서 서울의대 동문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참고로 수필가 하정아씨가 한 "이원택 작가의 문학세계" 란 축사의 일부를 실어보면,



"그의 글을 읽을 때는 정신은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의 장난기 가득한 최면술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니까요. 그의 글은 보물창고입니다. 총천연색 화려 찬란한 군무 속에, 난잡한 삼류로 흐르는 신과 속에, 작고 조용하여 언뜻 지나치기 쉬운 보물이 흑백의 그늘 속에 숨어있습니다. 그 알갱이는 보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는 글 한편 한편마다 그 글을 쓰게 된 저의를 한 문단, 혹은 한두 문장 안에 살짝 숨겨둡니다.

그의 글은 행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선뜻 가볍게 읽었다가는 그의 의도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행간 속에 숨어있는 진실과 진의와 사랑과 아픔을 읽으려면 그의 영혼 한 자락이 펼쳐,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혹시 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562-743-1436으로 연락해 보십시오.



정희현(72) 동문 - 메릴랜드에서 풀타임 Radiologist 로 근무하고 있는 정동문이 다섯번째 개인전을 뉴욕시 Phoenix Gallery에서 내년 1월 4일부터 27일까지 가질 예정이다.

www.heehyounchung.com, www.facebook.com/heechungart를 방문하면 정동문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다.

남가주지부 연례 선후배 친목의 밤 성대하게 열려

지난 8월 27일 토요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드림 웨딩 홀에서 '연례 선후배 친목의 밤' 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석해 동창회의 발전과 회원의 침목을 다졌다.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더욱 활발한 교류를 다짐했다. - 고용규(73, 남가주지부 회장)



필라델피아 지부 모임

지난 10월 15일 필라델피아 중식당에서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부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은 김영욱(60)동문 부부의 최근 북한 의료봉사기행이 lecture 주제로 되었다.



Central NY 지부 연례모임 성황리에 열려

매년 1박 2일 모임을 가진지 20여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7월 30, 31일 최연장 서상철(56) 포함 11쌍의 지부동문 부부, 4쌍의 손님(연대 졸업) 부부, 특별 방문한 문대옥 동창회장, Convention co-chair 서인석 부부 등 Binghamton 근교 En-Joie CC과 Conklin Players Club에서 골프대회를 가졌습니다.



7월 30일 가진 연례총회에서 민발식(66) 동문이 만장일치로 사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이년동안 수고하신 권정덕 회장과 오인환 총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챔피언 임용규(69)동문에게 박병돈 배와 문대옥 회장이 기증한 Cleveland wedge를 수여했습니다. 오인환 총무의 재치있는 사회로 진행된 재미있는 여흥시간의 짧음을 아쉬워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민발식(66, 중부뉴욕지부회장)

대뉴욕지부 제일차 단합대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몇 년동안 지부활동이 소원했던 대뉴욕지부가 새로 선출된 백승원(79)회장의 야심찬 첫걸음을 선보였다. 참석인원이 40-50명 정도 나타나면 체면을 세울 수 있겠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100명을 훌쩍 넘어 사이사이 의자를 끼어 넣으며 즐거운 비명을 올렸다. 지난 몇 주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몇번씩 전화를 드리며 억척스럽게 노력한 신임 백회장의 인간 승리다.

세 시간 넘게 롱아일랜드 끝에서 달려오신 이규용(41) 대선배님, 선배님을 옆에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동창회 행사가 더욱 빛나 보이는 것 같다. 부디 오래 오래 건강하십시오. 건강을 회복하신 이운순(58)선배님과 이유찬(64)선배님,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올라오신 이만택(58)선배님, 밤중에 운전하기가 힘들셔서 아드님을 대동하신 송세엽(58)선배님, 델라웨어 올라온 문대옥(73)동창회장, 막내 오무연(89)과 박종호(85) 부부 등,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할때마다 성원의 박수가 그칠줄 몰랐다. 이영인(86)동문 밑에 한달간 연수를 하고있는 모교 정형외과 4년차 신영호가 행사내내 사진도 찍고, 잔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아, 모든 동문 부부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끝없이 먹어대며, 감미로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몇 년동안 풀지못한 회포를 풀고 있으니 환상의 나라 샹그리아가 무에 부러울텐가?

행사때마다 특급 포도주를 선사해 주시는 이흥빈(63)선배님, 지난 몇 년간 지부를 위해 애쓰신 광승용(71)전임회장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감미로운 목소리, 아성미 넘치는 댄싱솜씨, 최경주도 울고갈 골프솜씨를 가진 천의 얼굴 백 신임회장의 강력한 리더쉽을 기대해 보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11월 5일 Annual Ball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

대뉴욕지부 이규용(41)배 골프토너먼트 성황리에 마쳐



지난 10월 8일 중부 뉴저지에 위치한 Royce Brook Country Club에서 있었던 '이규용 배 골프대회' 는 환상적인 날씨의 축복과 모든 선배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도움과 참석으로 대성공이었다. 86명의 골퍼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쳤으며, 저녁 시상식과 만찬에는 95명이 함께 모여 Club House에서 풍성한 음식과 상품들로 대 성황리에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가졌다.

67년 노여수 동문께서 80타로 2011년 '이규용배 골프대회' 의 남자 챔피언으로 등극하였으며 Mrs. 이상무(62)께서 86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자 챔피언 컵을 가져가셨다.

제일 많이 오신 동기상에는 모두 13분이 참석하신 64년 동기회에게로 돌아갔으며, 특별 동기상에는 모두 10분이 참석하시고, 골프의 평균 스코어도 가장 뛰어나며 멀리 Albany(김상복 동문), Buffalo(전영성 동문)그리고 한국(김성일 동문)에서 오신, 그러한 열정과 향수를 담은 67년 동기회에게로 돌아갔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도네이슨을 해주신 선후배님들,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접수와 상품 진열, 그리고 진행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하게 도와주신 Mrs. 최준희(64), 또 맛있는 점심 김밥을 멀리에서 픽업해 오시고 작은 곳은 일들을 도맡아 해주신 Mrs. 오용호(72)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오늘의 수상자는 남자부: 챔피언 노여수(67), 1등 문대옥(73), 2등 이능석(63), 3등 허선행(64), 장타상 이영인(86), 근접상 이상무(62)

여자부: 챔피언 Mrs. 이상무(62), 1등 Mrs. 김상복(67), 2등 Mrs. 윤영섭(63), 3등 Mrs. 김중권(69), 장타상 Mrs. 육순재(69), 근접상 Mrs. 전영성(67).

Nearest to Center Line 유중선, Mrs. 백승원(79) / 사진: 이규용 선배님과 함께 한 수상하신 동문 부부들 - 백승원(79, 대뉴욕지부 회장) 보고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보고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만택(58)입니다.

시계탑을 통하여 동문들에게 인사드리면서 미주 재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 오연천 총장)의 자매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 장학사업, 각종 연구사업 지원, 미국교포사회 지원, 재미동문간의 친목 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 5월 15일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2010년 2월 17일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면세 승인기관 (501-C-3)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문 간에는 김기태(58)동문 부부의 50만불, 김의신(66)동문의 20만 불, 최지원(61)동문의 5천불, 24회 동문(70년 졸업)들의 3,040 만원 기부 등으로 널리 알려지고 관심을 갖게 된 재단입니다

모교는 SNU Challenge을 시작하였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대학,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의 3대 Vision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5,0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기부하여 주신 분들에게 예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념품 및 간행물 증정, 기부인 명예현정 및 예우, 학교 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학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로 보답하며,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도 소중히 여깁니다.

1. 설립 목적

- * 서울대학교 국제화 및 세계 수준 영구 인프라 구축
- *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인재 육성 지원

* 서울대학교 사회적 기여도 향상 도모 및 자선 활동 수행

* 동문간의 친목 강화 및 재미 동문 공동체 발전 지원

2. 서울대학교 미주 재단 세부 지원 분야:

- A. 장학지원
 - *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 * 미주 동문 자녀의 서울대학교 입학 수확시 장학금 지원
 - * 저 소득 미주 한인 자녀의 서울대 입학 및 수확시 장학금 지원
- B. 연구 지원
 - *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 * 각종 강연회 지원
- C. 프로그램 지원
 - *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미주 지역 하계강좌 프로그램 지원
 - * 동문 자녀 및 미주 한인 자녀 국제 하계 강좌 참여 지원.

본 재단은 기증인의 희망과 요청을 최대한으로 반영합니다.

김기태 노정옥 장학금은 우선 의대학생, 또는 의대학생 하기연수에 사용하게 되며, 김의신 동문의 학술기금은 의대 핵의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기증인에게는 그 기금의 사용처 및 잔고를 보고하여 드립니다.

한편 두분 절약하여 기증한 여러분의 고귀한 기증금은 여러분이 만족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 될 것을 약속합니다. Tax Return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서울의대 동문 및 서울대학교 전 동문들의 재단입니다. 재단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고 동시에 충고와 질책을 아껴 주시길 맡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이사장 이만택 (58)
(문의 215-968-3897 mtleemd@verizon.net)

미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60년 졸업 동문 자녀 소개



Jim Lee

짐리(Jim Lee)는 60년 졸업 이덕승 동문의 아들로 1964년생, 한국 이름은 이용철이다. 다섯 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 후 세인트 루이스에서 성장했다. 어려서 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으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 위해 프린스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은 만화가임을 깨달은 후 1987년 마블 코믹스에 입사했다 그가 그린 처녀작인 X-Men 1탄은 약 800만 부의 판매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1992년에는 샌디에고에 와일드스톰 프러덕션을 공동으로 설립한 후 퍼낸 Wild Cats 역시 상당한 판매부수를 올렸다. 2008년에는 'DC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맡아 소니의 새 멀티 플레이어 게임을 개발하였고 2010년에는 69년만에 바뀌는 원더우먼의 의상을 현대적인 디자인을 감행해서 화제가 되었다. 2011년 8월 31일 그가 새로 제작한 'Justice League'가 시판되었는데 그날로 매진되는 현상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그간 수십년을 이어져 오던 Batman, Superman 등의 인물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탈바꿈하는 시리즈 만화이다.

현재는 출판사 DC 코믹스의 공동 발행인으로서 또한 만화 아티스트로서 샌디에고에 살고 있다. Jim Lee에 대해 로컬 언론들은 '현재 만화업계에서 가장 파워풀하게 성공한 사람' 이라고 소개하며 '섬세하고 정교하면서도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 스타일을 창조'해 내는 만화가로 극찬하고 있다.



Elena Park

Elena Park은 60년 졸업 박훈순 동문의 딸이다.

Elena Park은 Metropolitan Opera의 Assistant Manager로 활약하고 있으며 Editorial and Creative Content의 Director 책임을 맡고 있다. 그 중의 한가지 Program은 여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Met Opera의 Live HD Broadcasting 이다. 대 성공을 이루어 46개국의 1,300 극장에서 Met Opera를 동시

상영하고 있다.

Elena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에서 영문학을 공부 했으며 성악과 Piano, Violin도 공부하였다. Philadelphia Opera Company와 San Francisco Opera에서 홍보 담당으로 일하였다. Elena는 music writer로써도 활약하고 있는데 "James Levine: 40 years at the Met" 출판의 Editorial Director를 담당하였다.

Elena는 재치있고 예의 바르며 지적이고 성실해서 동료들에게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Alice Park

Alice Park은 60년 졸업 박춘명 동문의 딸이다. TIME Magazine에서 과학과 의료담당 Senior reporter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 Stem Cell Hope를 출판하였다. 다음은 website 에 실려 있는 글이다.

Alice Park is a senior reporter at TIME and currently serves as the department head for the magazine's science coverage. Since 1993, she has reported on the breaking frontiers of health and medicine in articles covering issues such as AIDS, anxiety and Alzheimer's.

Each January, Park and the science staff prepare an in-depth special report on health. Past topics have included mental health, the genetic revolution, innovative drug design and preventive medicine. Later in the year, she and the staff produce a special issue on medical topics with broad social and regulatory impact, such as obesity and the power of the genome.

In addition to her science- and health-focused writing, Park contributes to the magazine's Olympics coverage. She traveled to the Winter Games in 1998 and 2002 to cover figure skating, and played a central role in TIME's reporting of the judging scandal in Salt Lake City. In 2004, Park covered gymnastics and swimming for TIME in Athens, and wrote the cover story on American swimmer Michael Phel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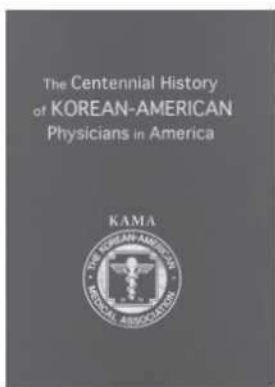
Park's work has been recognized with awards of excellence from the National Arthritis Foundation as well as the National Headache Foundation.

Additionally, Park has received two CASE media fellowships the first in 2000 to Harvard Medical School, where she designed a program focused on the latest understanding of AIDS, and the second in 2003 to UCLA's Medical School, where she researched the growing number of clinical applications of genomic research. Park has also hosted and served on numerous panels exploring the role of the media in reporting medical news. She received a master's in science journalism from Boston University.

- 전희근(60, 필라델피아 지부) 제공

미주한인의사 100년사 발간

The Centennial History of Korean-American Physicians in America



To all Physicians,

Please note that KAMA is very pleased to announce the historical book was just published and indeed it was extremely time - consuming and challenging task for the editorial members, to embark on initiating the plan, collecting data/information and editing as well as fund-raising.

I, as one of editors, am confident and proud that the entire contents are as precious and valuable as any other historical references in the field of medical career, practice and activities.

However, I strongly feel sorry that we might have missed a lot more information yet.

By the way, it wa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to have the opportunity working with the distinguished editorial members as presented on the editorial panel and do appreciate their tremendous contributions. Looking and moving forward in the next century to the glory and epoch-making of all physicians of Korean heritage, I am.

Most truly,

Sun Haeng Huh(허선행), MD / Editor

EDITORIAL BOARD

- Sun Haeng Huh, MD (Editor)
- Jung Hwan Ahn, MD (Co-editor)
- SeungHo Howard Lee, MD (steering Committee)
- Richard Sangchul Rhee, MD (Steering Committee)
- Heung Soo sul, MD (Steering Committee)
- In Sook Song-Yu, MD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ADVISORS

- Jai Ock Chu(추재옥), MD
- Chung Taik Chung, MD
- Daniel Y. Kim, MD
- Yong Ho Kim, MD
- Won Jay Lee, MD
- Jung Gil Oh, MD
- Youn Kang Oh, MD
- Hak He Rhee Pyun, MD
- Dae Sik Rho, MD
- In Suk Seo(서인석), MD
- Kenneth Kwanho Song(송관호), MD
- Matthew I. S. Hwang, MD
- Hokun Yeu, MD
- Kang Yun Yu, MD

FINANCIAL REPORT

Fiscal Year Ended June 30, 2011

GENERAL FUND

REVENUES		
Membership Dues		\$61,011
Scholarship Contribution	20,000	
Less: Transfer Out to Scholarship fund	(20,000)	
Public Donations		5,225
Green Project Revenue	1,450	
Less: Transfer Out to Green Project fund	(1,450)	
Local Golf Meeting Participation Income		4,600
Other Income		98
Total Revenue		70,934

EXPENDITURES		
Banker Charges	149	
Computer Expense	30	
Executive Committee & Committee Meetings	4,019	
Charitable Donation	1,000	
New York Chapter Golf Meeting	4,220	
Newspaper(Sigetop) Publication and Delivery	23,526	
Payroll and Payroll Taxes	33,499	
Postage/Shipping/Delivery	596	
Printing, Copying, Supplies & Office Expense	692	
Professional Fee	3,000	
Revenue Sharing	1,830	
Telephone	2,185	
Travel Exp. Reimbursements	289	
Utilities	1,080	
Total Expenditures		76,115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5,181)

MEDICAL CONVENTION

REVENUES		
Donation		34,695
Member Registration & Event Fee	103,045	
Refund	(4,650)	98,395
Total Revenue		\$133,090

EXPENDITURES		
Convention Expense - Banquet	67,625	
Gifts and Award	12,760	
Flower	500	
Brochure Printing & Mailing	1,029	
Golf and Tennis	16,324	
Speaker Travel Expense Reimbursements	3,167	
Tour	10,849	
Visual Aids & Copy	6,864	
Office Supplies	268	
Guests & Secretary Travel Expense & Reimbursements	2,222	
Total Expenditures		121,608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11,482

GREEN PROJECT FUND

Revenue from Members	1,450	
Total Revenue		\$1,450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1,450
Beginning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17,767
Ending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19,217

ANNUAL BALL

REVENUES		
Revenue from Members	14,920	
Charity Contributions	6,760	
Total Revenue		\$21,680

EXPENDITURES		
Band and DJ	1,800	
Banquet and Entertainment	16,710	
Invitation Printing & Mailing	850	
Total Expenditures		19,360

Excess of Revenue over(under) Expenditures \$2,320

Green Project Corner

Tufts University 에서 의학 연구를 다녀와서

윤 병 우(본과 4학년)

1. 서론
Tufts University를 가게 된 계기는 우연이면서 필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과 2학년 유전학 수업,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연구실을 다니면서 DNA 해석을 컴퓨터 코드처럼 해석해서, 상위 언어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여기에 gene methyla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3학년때 보라매 병원의 내과 특별 초청 세미나에 Tufts University에서 methylation 연구를 하시는 본과 선배님인 최상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것을 계기로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교수님의 세미나 이후, gene methylation sequencing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였고, 본인이 생각하는 DNA의 컴퓨터 모델을 설명하면서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최상운 교수님께서 보라매 병원에 오신 것은 우연이지만, 본인이 이미 전에 computational genetic model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Tufts 대학에서 연구한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2. 선택 실험의 목표
Tufts University를 가기 전에 2 가지 목표를 가졌다. 우선, 본인의 DNA를 컴퓨터적으로 해석하는 모델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methylated microarray 실험이 한국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실험 방법을 익히기로 하였다. 최상운 교수님과 실험실에서 본인의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둘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험으로 쥐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gene methylation이 바뀌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기로 하였고, 이들 유전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microarray 데이터 분석을 교

수님의 연구실에서도 한 적이 없어서, 본인이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였다.

3. 보스턴에서의 생활
보스턴은 MIT, Harvard를 비롯한 대학들이 많이 있고, 여름에 해외에서 많이 연수를 오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고 알려졌다. 또한, 보스턴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본인은 인터넷에서 MIT 대학원 기숙사를 구하였다. 방은 따로 있지만, 부엌, 거실, 화장실을 2명의 공학도와 같이 사용하였다. 많은 경우 본인과 같은 형태의 주거를 보스턴에서 사용한다.

4. 연구실 실험
본인이 실험을 한 연구소는 Human Nutrition Research Center on Aging이었다. 여기는 Tufts 대학에서 운영을 하며, USDA(미국 농림부)에서 장소와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곳이었다.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미리 J visa를 받아야만 했다.

실험은 크게 세 가지 연구를 하였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생각한 DNA를 컴퓨터 코드를 일대일 대응해서 상위 언어적인 해석을 할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상운 교수님 외에도 Tufts 대학에 있는 System biologist들과 토론을 하였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둘째는 청년, 성년, 노년에 해당하는 쥐에서 나이가 들에 따라 어떠한 유전자의 methylation이 바뀌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서, methylation array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실험, 통계를 익히는 것이었다.

셋째는 간에서 염산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유산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얼마나 소비했는지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이전에 해본 실험과 달라서, 같은 연구원과 같이 실험을

하면서 방법들을 익혔다.

5. 미국과 한국 연구실의 환경 차이
본인이 있던 연구실을 한국의 연구실과 비교하자면 크게 3가지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첫째는 실험과 실험 이외의 업무를 나누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원들의 위생 및 건강을 위해서 유해한 시약에 노출을 줄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실험 공간 옆에 노트북을 두고 연구를 하면서 온갖 화학물질을 평소에 들이마시는 것을 생각하면 많이 부러웠던 것 중 하나였다.

둘째는, 실험동물의 권리가 인간만큼 중요해서 안락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 실험동물을 안락사 시키고, 실험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실험동물이 죽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지면 앞으로 연구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것을 감시하는 단체가 수시로 연구실을 방문해서 실험동물을 끝까지 편안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장비의 수준은 한국이나 미국이 비슷하지만 개수가 더 많고, 실험자의 시간과 노동을 아끼고, 빨리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랩에서 만들 수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구매해서, 연구원들이 5시 이후에 학교에 남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한국의 실험실은 실험을 하나 하기 위해서 버퍼를 만들고, 장비를 예약해서 밤에 실험을 늦게까지 하는 것과 많이 비교가 되었다.

6. 미국 내 동문의 지원
Tufts University에서 의학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가장 많이 주신 분은 최상운 교수님(80년 졸업)이었다. 연구소가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J 비자 없이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고, 서류 작업을 쉽게 해주셨다. 또한,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본인이 잡은 숙소로 라이드도 해주시고, 보스턴에서 생활에 적응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셨다. 가령, 연구 실적에 대한 조급증을 가지지 말 것과, 실현 가능한 실험 설계 등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통제된 실험실을 출입하시는데 같이 다니시면서 해결해주셨고, 학회가 있으면 많이 소개해주셨다. 또한, 한국에 있는 아내나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할 수 있게 국제 전화 카드, 보스턴에서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 카드를 제공하고, 출국하는 날까지 얘기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해주셔서, 끝까지 동문 후배에게 섬세하게 배려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동문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의학 연구를 하든가, 의료 연구를 하는데 동문의 힘이 중요하고 필요할지 많이 느끼게 되었다.

7. 맺는말
미국의 연구소를 가면서, 많은 실험을 하고, 연구 주제를 검증하는 등의 많은 학문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의미가 있게 배운 것은 연구를 임하는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다. 본인이 한국에서 연구소,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경우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실험을 하면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좋은 연구를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논리 정연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을 최상운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듣고 몸소 느껴서 좋았다. 본인이 욕심을 내서 빨리 실험을 끝내든가, 논문을 빨리 쓰고 싶어서 늦게까지 연구소에 있으면, 집에 가서 쉬든가, 뉴욕 시도 놀러갔다 오라고 장려해주시는 것이 감사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 중에 실수해서 결과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등,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애정과 흥미를 꾸준히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배들도 미국에 의학 연구나 연수를 다녀올 기회가 있으면 적극 권장하고 싶은 이유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연구에 대한 태도를 체험하고, 학문의 실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문의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준홍(51) 전 회장님 별세

우리 동창회 14대(85~86)회장이셨던 박준홍(51) 선배님이 지난 8월에 87세의 나이로 갑자기 작고하셨다.

이 분은 일찌기 1956년에 도미하시여 안과를 전공하셨다. 복잡한 환경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셨다. 나와 몇번 의논하기도 하셨다. 선배님은 아주 섬세한 분이여서 내가 미국에서 해마다 받는 연하장 중에서 제일 먼저 받았던 것이 이 분이 보내온 카드였다. 선배님께서 작고하심을 슬퍼하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노용면 55, 대뉴욕지부)



박준홍 형님 영전에

이메일도 없이 촘촘하게 사는 처지에 비보를 오늘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정정하시고 활기찼던 형님이 웬 일로 그리 서둘러 떠나셔야 합니까!? 백세도 더 즐겨 사셔야 했을 분이...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내주셨던 카드들에 답장도 못하고 응졸해서 밤한 실례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용서받지요. 또 미주동창회 제14대 회장직을 맡으셨을 때 총무라는 중책을 저를 믿고 맡기셨는데 그 일 제대로 못해드린 무책임했던 허물을 어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에는 그 응졸했던 마음에 먹물 찼던 흠들을 형님 만나 큰절 올려 사죄하며 마음을 가볍게 가지려 했었는데...
하지만 형님...
그런 구름진 마음속에 형님의 안과병원 개관식 때의 자신만만했던 자태며 저쪽이 총명한 모습이 이 지금에도 혁혁하고, 형수님이 정성스레 차린 환갑잔치, 미미 생일, 막내 제이슨의 풍요했던 돌잔치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기억들이 더없이 아름답고 또한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온 식구가 북녘에 가 고사리 따며 송충이 들끓던 골프장에서 서투른 골프를 즐길 수 있었던 일, 더욱이나 따 가고 온 고사리를 저녁 늦게 삶느라 희희낙락 떠들썩하며 지냈던 일들이 어제 있었던양 형님 잃은 이 마음 한구석에 생생히 일고 있으니 그때의 형님의 배려와 사랑이 지금 가슴 벅차게 안겨옵니다.
“흐르는 물 앞을 다루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먼저 흐르고 뒤 흐름 타 없이 그저 흐름 따라 흐른답니다. 우리 삶의 흐름도 그러하겠지요.
형님! 살아생전 드리지 못한 제 사죄의 큰절 올리오니 지금이라도 받으소서!
동생 정태(62, 미시간 지부) 드림

미시간 주 동창 여러분께

지난번 저의 남편 장례식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예쁘고 큰 꽃다발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생전에 모교를 사랑하였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남편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고 시계탑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내에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하길 기원하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51년도 동기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51년도 박준홍 내자 드림

[Photograph of Dr. Park with his wife Kay on their 10th wedding anniversary in Texas.]

In Memory of My Father, Joon Hong Park. A Life of Good Fortune, Blessings, Hard Work, Integrity, and Love.

By Mimi Park Kang

Dr. Joon Hong Park left this world on Saturday, August 6, 2011, at the Delray Medical Center near his home in Boca Raton, Florida. He suffered a cardiac arrest; his death was very sudden. He was 87 years old and just one month away from his next birthday.

My father, Joon Park, was born September 23, 1923 in Chungmoo, a fishing village on the southern tip of Kyongsang-nam-do. In 1951, he received his medical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e first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56 to train in his field of specialization, ophthalmology. The very first place my dad came to was actually Atlanta, Georgia - to the Georgia Baptist Hospital. When he arrived, he was told there was no program in ophthalmology and was sent on to New York City. After spending some time as a resident at St. Luke's Medical Center, he went to Philadelphia to study with the renowned ophthalmologist Dr. Edmund Spaeth. After returning to Korea to practice for some years, my father decided to emigrate to the United States and settled in the Michigan suburb of Grand Blanc. Throughout his career, my father never stopped studying and advancing his knowledge and ability as a surgeon. He constructed a state-of-the-art surgical facility, brought the technique of *Phacoemulsification* to his cataract patients in Flint, designed a patch for patients with pink-eye, and investigated new techniques in laser surgery towards the end of his career. Perhaps the most impressive feature of his practice in Flint was the service he brought to his cataract patients, primarily the elderly. He bought a van, hired a driver who was a retired police officer, and picked up his patients early in the morning on the day of surgery. After the surgery, the patients would share lunch with the staff, receive a bouquet of flowers, take pictures with the doctor, and be driven home safely to their homes. The Park Eye Surgi-Center was sold in 1995 but lives on with its original name on Linden Road.

My father served as president of the SNUCMAA f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 board member for the Michigan chapter. During his tenure for the alumni association, the "Green Project" was established. In his community, he served on the board of the city of Flint, contributed to the city's revitalization, and was featured as a 'Patriot' in the local paper for flying the largest American flag in town. Aside from medicine, my dad's passion in life was tennis. He played nearly every day, won many local tournaments in the singles division, and continued to play into his retirement. In his later years, he took up golf and played a round every morning in Boca. He also enjoyed fishing and reading history, particularly the history of East Asia.

Above all these things, he was a committed, responsible, and loving husband and father. He and Kay enjoyed 41 years together living in Grand Blanc and then Boca Raton. Joon is survived by four children and four grandchildren: Kenneth Park, Kyong Park, Mimi Park Kang, Jason Park, Eunice Park, Miji Park, Cyrus Park, and Gina Joon Kang. His daughter Onmi Bay Park passed away in 2005.

To me, my dad was my hero, my role model, and an unconditionally loving parent, who was always there for me. He was there for me when I took my first steps, when I learned how to write, when I first drove a car, when I graduated from high school, when I got married, and when I had my daughter, Gina. My parents drove hundreds of miles to see me each year, and when I decided to return to school, they stayed with me so that I could get away to the law library and study for exams. My father was a quiet man full of life and at peace with the world; he would drive nine hours from Boca to Atlanta to visit, mow my lawn, eat his favorite dinner of rice and dwang-jang gook, and wake up early the next morning to play golf.

A miracle happened the night of my father's death. He was baptized on his deathbed by Father Carlos of the Emmanuel Catholic Church in Delray Beach. His Catholic name is "Pio" after the renowned Padre Pio of Pietrelcina. His body was laid to rest on Tuesday, August 9th at the North Atlanta Memorial Park in a ceremony officiated by Father Gilbert Exume of Saint Brigid Catholic Church, my parish, and attended by his family and friends, including 1951 classmate Dr. Jung-hee Oh of Atlanta.

On behalf of my brothers, I want to say how much we respected our father, how much we miss our father, and how much we will always love him. In his memory, my mother donates \$10,000 to the Green Project so that future doctors may enjoy the opportunities which my father had. My father and we wish you peace and happiness always. Thank you for reading.

실버 프로젝트 제공 2012년도 북 폴란드 및 발틱 3개국 여행안내

(Gdansk, Malbork, Olsztyn, Kaunas, Vilnius, Trakai, Siauliai, Rundale, Jurmala, Liga, Parnu, Tallin)

동문 여러분께

미주동창회 2012년 Silver Project의 Chair Person을 맡은 한기현입니다.

Silver Project에서는 2012년 여행을 아직 많은 동문들이 여행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북 폴란드와 Baltic 3개국(Lithuania, Latvia, Estonia)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Iceland Tour도 검토 하였으나 언제 화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지 몰라 안전하게 북 폴란드와 Baltic 3개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뉴욕 아시아 관광에서 우리 여행을 주관하게 되었으니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관광여행사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여행일자: 2012년 5월 25일(금) 부터 6월 3일(토) - 9박 10일
- 2. 여행가격: 뉴욕 출발기준 US \$2,895.00 + Tax \$377.00 (10/15/11현재) / 1인당(2인 1실 기준)
*유로화 대 US \$1.45 기준, (환율에 따라 요금 변동있을 수 있음)
*인원: 40명(인원이 줄어들 경우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 여행포함사항:
 - a. 항공: Finair- Economy Class- JFK / Helsinki / Gdansk - Tallin / Helsinki / JFK왕복
 - b. 식사: 1일 3식- *조식: 호텔 부패 * 중식 및 석식: 현지 사정에 따라 현지식 혹은 호텔식.
 - c. 호텔: 4 & 5 Star Hotel (특급호텔 한국 여행사 기준)
 - d. 일정에 명기된 전 관광지 입장료.
 - e. 가이드: 한국인 가이드 전 일정 안내 및 현지 가이드,
 - d. 현지 대형 고급 Air Condition 관광버스 이용.

- 4. 비 포함사항:
 - 공동경비: 1인 1일 15유로 X 10일 = 150유로 X \$1.45 = \$215.00을 final payment와 함께 지불하면 현지에서 공동으로 지불(가이드, 기사, 현지 가이드, 식사시 bottle water, 포함).

연락처: 아시아 관광 여행사

347 Fifth Ave., #1308, New York, NY 10016 (212)685-2662, e-mail: asiatour4@hotmail.com

한기현 (63) 실버프로젝트 위원장 973-992-2695



紙上法醫



어느 쪽으로

노 용 면(55, 대뉴욕)

쿠즈니키씨 (Mr. Kuznicki)는 아침 일찍 맨하탄 57번가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 이 길은 맨하탄 중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넓은 양측통행 도로이다. 그는 그길 남쪽편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에 의하면 그가 그때 신문을 사러 가게에 가던 도중이었다고 했다.

그를 친 차는 뺑소니를 쳤고,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사고 현장에는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져 생긴 스킵드 자국 (skid mark)이 있었는데, 이 자국을 분석한 결과 운전수가 처음에는 차를 멈추려 하다가 다시 급히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왼쪽 앞바퀴와 오른쪽 앞바퀴 무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냈다.

쿠즈니키씨는 가까운 병원에서 보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사망하였다. 신기하게도 상처들은 모두 몸 왼쪽에 있었다. 왼쪽 하지에 있는 뼈들이 산산히 부러져 있었는데, 그곳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힌 부위임을 입증케 했다.

그가 병원에 실려갈 때 입고 있던 옷을 검사하니, 바지에 짙은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 이런 페인트는 주로 택시(yellow cab)나 스쿨버스에다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범퍼에 부딪쳐 생긴 상처의 높이로 미루어, 그가 버스에 치었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갑자기 사람을 치게 된 상황에서,

운전수는 즉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급히 제동을 하면 자동차의 앞부분이 숙여지고 낮아진다. 이것을 급강하 또는 nose dive라고 부른다. 그럼으로 차의 범퍼에 부딪혀 생기는 상처의 부위는 진짜 범퍼의 높이보다는 꽤 낮은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의 하지에서 본 범퍼 손상의 부위는 버스에 의해 생겼다고 보기에는 너무 낮았다.

경찰은 차체 수리공장(body shop)들을 찾아 나섰다. 우선 택시회사들이 거래하고 있는 공장들을 찾아가, 앞이 우그러진 차와 두 앞바퀴 바닥무늬가 서로 다른 자동차를 찾았다. 그러자 문제의 차를 곧 찾아냈다. 그 차의 운전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고가 난 날 새벽에 자기가 57번가를 지나간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을 친 적은 없고, 차가 우그러진 이유는 그 전날 쓰레기통을 쳐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운전수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택시회사는 곧 그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 운전수는 택시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의 운전면허증은 취소되지 않았다.

그런지 얼마 후, 그 운전수가 자기 돈으로 자동차 한 대를 사서 택시 운행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택시위원회가 그것을 거부했다. 위에 적은 사

고외에도 가벼운 사고가 두 개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운전수에게 법과대학을 갓 졸업한 조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택시위원회에 청원을 했다. 사고 당시 운전수는 사람을 쳤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으니 관용을 베풀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한 나더러 부디 택시위원회에 가서 좀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가 자기 아저씨를 위한 정성은 참으로 각별했다.

이 젊은 변호사가 법의관실을 여러 번 찾아오더니, 쿠즈니키씨의 시체에 발견된 상처들의 위치가 사건에 관련된 상황들과 잘 합당하지 않음을 알아챘다. 경찰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시 피해자가 57번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걷고 있었고,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부검보고서에는 상처들이 모두 왼쪽에서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으니, 그 차가 피해자를 쳤다고 하는 결론을 믿기가 어렵다고 했다. 자기 아저씨는 차를 57번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니, 그의 차가 피해자의 왼쪽에만 상처를 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아마도 쿠즈니키씨가 그 길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의해 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그에게 설명하기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운전수와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서로 움직이다 보면 이와같은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일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변호사는 자기 아저씨의 차가 쿠즈니키씨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다고 하면서, 나더러 청문회에 가서 설명하되, 쿠즈니키씨가 입은 상처가 왼쪽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심심 부탁을 했다. 썩 내키지는 않

았지만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에게 일러 주었다. 자기 아저씨가 직업을 되찾게 하겠끔 하려고 노력하는 그 젊은이의 성의를 쉽게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런 후 내가 경찰더러 그 사건에 관련된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이 피해자의 부인을 다시 찾았고, 부인이 자기 남편은 그날 아침 신문을 사려고 길 건너에 있는 가게를 가다가 차에 치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경찰이 이번에는 그 가게를 찾아갔다.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그날 아침 자기가 쿠즈니키씨를 보았다고 했다. 경찰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고 물었더니, 쿠즈니키씨가 신문을 집어들고 불펜을 찾고 있었는데, 그가 원하는 색깔이 없었기에 자기가 그걸 주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쿠즈니키씨는 가게를 떠나자마자 차에 치였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그가 57번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경찰이 수사 보고서를 고쳐서, "가게로 가다가"를 "가게에서 오다가"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그 변호사에게 알렸더니, 그는 내가 구태여 택시위원회에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 법의수사에서 말 한 마디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보여 주었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Medicolegal Evaluation of Industrial and Other Accidental Fatalities. International Microform Journal of Legal Medicine Volume 9, No. 3, 1974.
2. Yong-Myun Rho: Importance of Examination of the Clothed Victim.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6:19-20, 1985.

요즈음 새로 나온 카메라에는 미소를 짓지 않으면 셔터가 작동하지 않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는 순간 '아차 이제 나는 사진 다 찍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나는 사진사가 단체 사진이나 가족사진 찍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김치, 치즈' 를 다 불러내면서 웃게 만들려고 하지만 내게는 통하지 않는다.

나를 웃게 하면 팁을 많이 주겠다고 제안을 해도 성공할 때는 별로 없다.

평생 사람들로 부터 나는 미소 지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물론, 너무 심각해 보인다는니, 화난 사람 같다는니, 심지어는 거만하다, 사람을 비웃는다는 평판까지 들어온 사람이다.

새 카메라에 대한 기사를 읽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왔다. 그 순간에 '아 나도 웃을 수는 있구나' 하는 자각과 희망이 생겼다. 젊었을 때 내가 실수로 미소를 지은 것을 보고 훌쩍 반했다는 여자가 있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 시절 나의 인생철학은 이 세상에는 웃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잘 웃는 사람들은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독일 비관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 당시 나를 만났으면 아마 나를 형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미국에 와서 나를 당황하게 한 것들 중의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스쳐가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더구나 예쁜 아가씨가 그럴 때는 바보같이 가슴이 설레기도 했고 오해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이 미소들은 가짜라는 것을 곧 깨달았고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쉽게 감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가짜라도 웃어주는 것이 나처럼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심각한 얼굴



강아지의 미소

김 병 석(59, 대뉴욕)

을 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결론은 내렸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늘 미소를 짓는 것이 대인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환자관계에도 좋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하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도 남의 찡그린 얼굴이 싫고 미소 지은 얼굴이 좋다. 남도 나를 볼 때 똑같이 느낄 것이다. 우선 내 방과 사무실 여기저기에 거울을 걸어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얼굴의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거울 이외에 내 방안에는 미소 짓는 연습에 도움이 될까하여 크게 미소 짓고 있는 배불 뜨기 선인의 나뭇조각, 활짝 웃고 있는 화려한 도자기 선인, 은은한 미소를 띠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부자상 돌조각, 페루에 여행가서 사온 순진하게 웃고 있는 왕자의 사진 등이 있다. 물론 들락날락 하면서 이것들을 보고 나도 웃는 표정으로 바꿔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몇 달 전에 한 미국 환자가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고 대기실에 기다리게 했다가 들어오라고 대기실에 나갔다. 같이 온 아버지가 말하기를 오늘 한 번만 너한테 보고 다음부터는 다른 의사한테 가기로 되어있다고 말한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환자의 첫 번째 상담을 끝냈다. 내 소견을 말하고 앞으로 다른 의사한테 가서 열심히 치료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 환자는 아니 나한테 계속 오겠다고 말을 한

다. 의아해 했더니 설명을 했다. 사실은 너의 첫 인상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는데 상담하면서 내가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아서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것이었다. 미소의 힘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래서 가끔 나는 손해를 본다. 돈, 여자, 벼슬이 나를 피해서 간다.

얼마 전에 애들 덕택에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다. 나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집을 어지럽히고 냄새 피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를 같이 지내다 보니 강아지에 대한 내 느낌과 생각이 아주 달라졌다. 꼬리치며 따라 다니고 출퇴근 할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매달리며 반겨주고 앉아있으면 옆에 와서 엮드려 있기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도 걸고한다. 강아지도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를 감지한 모양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흐뭇하게 하는 것은 그 녀석은 나를 무서워 피하지 않고 나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었다.

나같이 웃기 힘든 사람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한데 대단히 섬섬한 것은 강아지 자신은 미소를 지을지 모르는 것이다. 대신 꼬리를 흔든다. 만일 강아지가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더 황홀하게 만들 것이다. 아마도 꼬리는 흔들지 않게 되겠지. 나같이

미소 짓기 힘든 사람은 꼬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하루는 내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활짝 웃고 있는 선인들의 상을 보고 측은한 느낌이 들었다. 저렇게 계속 웃고 있으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모방을 해서 웃기는커녕 왈각 비위가 상했다. 사람이 저렇게 계속 웃고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살아가자면 즐겁게 웃을 일도 있고 화나서 찡그려야 될 일도 있고 슬퍼서 울어야 될 일도 있지 않은가. 계속 웃기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누가 날더러 계속 미소지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마음과 얼굴이 일치 해야 된다. 내 얼굴에는 늙은 주름이 아니라 찡그린 주름이 파져있다.

나는 드디어 늘 미소 지을 수 있고 찡그리는 주름을 영원히 펼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다. 늘 평화스럽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편집위원회 모임이 9월 21일(수) 오후 6시에 청해진에서 있었다.

참석자는 노용면(55), 이희경(61)부부, 김병석(59), 허선행(64), 서인석(73)위원과 새로이 동창회 살림을 맡은 제이미 김 사무장.

원고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학년 및 지부대표들에 새 사무장이 이메일로 원고요청을 한 결과 결과 자랑스런 동문자녀들의 소식이 들어왔다.

이처럼 원고모집을 위해 이메일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제이미 김 사무장의 노고에 감사했다.

8시45분에 회의를 마침.
- 편집장 김병석



29th Annual Scientific Convention

January 29(Fri.) ~ 22(Sun) 2012

GENERAL PROGRAM

Friday - January 20, 2012

4:00 pm - 5:00 pm Delegate Meeting
 2:00 pm - 7:00 pm Registration
 7:00 pm - 11: pm Class Reunion and Talent Show

Saturday - January 21, 2012

7:00 am - 11:00 am Continental Breakfast and Registration
 7:45 am - 11:30 am Scientific and Non Scientific Sessions
 8:00 am - 6:00 pm Golf Outing
 1:00 pm - 5:00 pm Scientific and Non Scientific sessions
 7:00 pm - 11:00 pm Grand Banquet

Sunday - January 22, 2012

7:00 am - 11:00 am Continental Breakfast
 6:30 am - 11:30 am Scientific and Non Scientific sessions

Grand Cypress Hyatt Regency Hotel

45 acre의 자연림과 21 acre의 Lake Windsong에 둘러 쌓여 있는 5 star 특급 호텔입니다. 작년에 새로 renovation을 한 815개의 객실을 갖추고 complimentary resort shuttle (to Disney, Sea world, and Universal Studio/Islands of Adventure)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water sports (sailboat, canoe, kayak, paddle boat), 물 폭포와 sliding 시설, sundeck 등을 갖춘 half acre의 수영장, tennis court, racquet club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fitness center가 있습니다. Jack Nicklaus가 design한 그림 같은 45홀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실 수 있음은 물론, 골프 아카데미에서 레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골프 cart는 GPS와 score keeping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편:

- Convention 참석을 위하여 airport에서 Hyatt Hotel로 오실 때(개인 부담):
 - * By taxi: \$55
 - * By shuttle bus: \$21 per person. "MEARS Transportation Group" 407-423-5566; Airport baggage claim 옆에 있습니다. 몇 명이 같이 오실 때에는 taxi가 오히려 저렴하고 편리하실 것입니다.
- Hotel 에서 Cruise로 향하시는 교통편은 동창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 Cruise를 마치고 항구에서 airport로 가시는 교통편: 개인의 비행사와 시간이 다를 것이므로 동창회에서 교통편을 마련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어서 일단 개인 부담 (\$36 per person)으로 shuttle bus를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점은 최대한 편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차후 모색하려 합니다. 항구 주변에는 식사를 하시며 shopping을 하시며 비행 시간에 맞추어 가실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Hotel 예약

- * Website 이용: <https://resweb.passkey.com/go/SNUCMAAofNA>
www.grandcypress.hyatt.com
- * 전화 이용: Hyatt Regency Grand Cypress (888) 421-1442 (SNUCMAA Room Block을 반드시 예약하실 때에 말씀 바랍니다)
- * 여행사 이용: Cruise에 참석을 하시는 분에 한 합니다.
- * 호텔 fee detail
 - \$169 for single occupancy (Convention 동안, Restaurant Breakfast 포함)
 - \$176 for double occupancy (Convention 동안, Restaurant Breakfast 포함)
 - \$176 for double occupancy (3 days Convention 전후, Restaurant Breakfast 포함)
 - \$155 for single or double occupancy (1월 29일, Room only)

Golf 예약

- * Golf 예약은 website 를 이용 예약 하시면 됩니다.
Go online: www.grandcypress.com. "Golf Club" 을 고르신 후, "Book Tee Times" 을 고르세요. 그 이후 course와 시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때에 promo code "SNUCMAA40" 를 넣으십시오.
- * Golf 비용:
 - 1월 21일(토) 골프 토너먼트 fee: \$105 (점심식사와 green fee 등 모두 포함). 토너먼트 참가자에 한 하여 토요일 오전 18홀을 \$40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Convention 행사날들 외에 이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 (Convention 전 후 3일 및 1월 29-30일에는 첫 18홀에 \$95 (점심식사 포함 안됨)이고, 그 다음 18홀은 \$40입니다.
 - 골프 Club의 Rental은 \$30이고, 골프 신발의 Rental은 \$10 입니다.
 - Cruise 동안 별도 요금 없이 골프장에 골프 bag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Parking

Hotel Parking: Hotel에 머무는 동안, \$6 per day (Hotel room keycard 사용 in and out)
 Cruise기간 동안도 parking이 가능함, \$6 per day

호텔에 머물지 않는 동문들은 Hotel room keycard가 없으므로 SNUCMAA member 임을 parking attendant에게 말씀을 하시고 paperwork을 하십시오.
 Port Canaveral의 parking, \$15 per day (20 feet 이내의 길이의 차에 한함)
 Drop off: Port entrance에 가능하고 다른 비용이 없습니다.

Rental Car

호텔에 Hertz 사무실이 있으므로, 공항에서 Hertz에서 rent 하시고 호텔에서 return 하실 수 있습니다.



29th Annual Scientific Convention

January 20(Fri.) ~ 22(Sun) 2012

GENERAL PROGRAM

Friday - January 20, 2012

4:00 pm - 5:00 pm	Delegate Meeting
2:00 pm - 7:00 pm	Registration
7:00 pm - 11: pm	Class Reunion and Talent Show

Saturday - January 21, 2012

7:00 am - 11:00 am	Continental Breakfast and Registration
7:45 am - 11:30 am	Scientific and Non Scientific Sessions
8:00 am - 6:00 pm	Golf Outing
1:00 pm - 5:00 pm	Scientific and Non Scientific sessions
7:00 pm - 11:00 pm	Grand Banquet

Sunday - January 22, 2012

7:00 am - 11:00 am	Continental Breakfast
6:30 am - 11:30 am	Scientific and Non Scientific sessions

Grand Cypress Hyatt Regency Hotel

45 acre의 자연림과 21 acre의 Lake Windsong에 둘러 쌓여 있는 5 star 특급 호텔입니다. 작년에 새로 renovation을 한 815개의 객실을 갖추고 complimentary resort shuttle (to Disney, Sea world, and Universal Studio/Islands of Adventure)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water sports (sailboat, canoe, kayak, paddle boat), 물 폭포와 sliding 시설, sundeck 등을 갖춘 half acre의 수영장, tennis court, racquet club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fitness center가 있습니다. Jack Nicklaus가 design한 그림 같은 45홀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실 수 있음을 물론, 골프 아카데미에서 레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골프 cart는 GPS와 score keeping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편:

- Convention 참석을 위하여 airport에서 Hyatt Hotel로 오실 때(개인 부담):
 - * By taxi: \$55
 - * By shuttle bus: \$21 per person. "MEARS Transportation Group" 407-423-5566; Airport baggage claim 옆에 있습니다. 몇 명이 같이 오실 때에는 taxi가 오히려 저렴하고 편리하실 것입니다.
- Hotel 에서 Cruise로 향하시는 교통편은 동창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 Cruise를 마치고 항구에서 airport로 가시는 교통편: 개인의 비행사와 시간이 다를 것이므로 동창회에서 교통편을 마련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어서 일단 개인 부담 (\$36 per person)으로 shuttle bus를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점은 최대한 편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차후 모색하려 합니다. 항구 주변에는 식사를 하시며 shopping을 하시며 비행 시간에 맞추어 가실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Hotel 예약

- * Website 이용: <https://resweb.passkey.com/go/SNUCMAAofNA>
www.grandcypress.hyatt.com
- * 전화 이용: Hyatt Regency Grand Cypress (888) 421-1442 (SNUCMAA Room Block을 반드시 예약하실 때에 말씀 바랍니다)
- * 여행사 이용: Cruise에 참석을 하시는 분에 한 합니다.
- * 호텔 fee detail
 - \$169 for single occupancy (Convention 동안, Restaurant Breakfast 포함)
 - \$176 for double occupancy (Convention 동안, Restaurant Breakfast 포함)
 - \$176 for double occupancy (3 days Convention 전후, Restaurant Breakfast 포함)
 - \$155 for single or double occupancy (1월 29일, Room only)

Golf 예약

- * Golf 예약은 website 를 이용 예약 하시면 됩니다.
Go online: www.grandcypress.com. "Golf Club" 을 고르신 후, "Book Tee Times" 을 고르세요. 그 이후 course와 시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때에 promo code "SNUCMAA40" 를 넣으십시오.
- * Golf 비용:
 - 1월 21일(토) 골프 토너먼트 fee: \$105 (점심식사와 green fee 등 모두 포함). 토너먼트 참가자에 한 하여 토요일 오전 18홀을 \$40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Convention 행사날들 외에 이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 (Convention 전 후 3일 및 1월 29-30일에는 첫 18홀에 \$95 (점심식사 포함 안됨)이고, 그 다음 18홀은 \$40입니다.
 - 골프 Club의 Rental은 \$30이고, 골프 신발의 Rental은 \$10 입니다.
 - Cruise 동안 별도 요금 없이 골프장에 골프 bag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Parking

Hotel Parking: Hotel에 머무는 동안, \$6 per day (Hotel room keycard 사용 in and out)
Cruise기간 동안도 parking이 가능함, \$6 per day

호텔에 머물지 않는 동문들은 Hotel room keycard가 없으므로 SNUCMAA member 임을 parking attendant에게 말씀을 하시고 paperwork을 하십시오.

Port Canaveral의 parking, \$15 per day (20 feet 이내의 길이의 차에 한함)

Drop off: Port entrance에 가능하고 다른 비용이 없음.

Rental Car

Hotel에 Hertz 사무실이 있으므로, 공항에서 Hertz에서 rent 하시고 호텔에서 return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부르기



오태희(64, 커네티컷)

1969년 뉴욕 맨하탄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시작하던 날 부터 내 이름은 Dr. Oh였다. 당시 내가 수련을 받으러 들어선 병원은 동서양에서 모여든 18명 인턴이 인종전람회를 열고 있었기에 나처럼 동양친구들은 모두 닥터 누구라고 불렀다. 병원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나를 거침없이 닥터에 힘을 줘서 Dr. Oh라고 소개를 하면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눈치가 이상하였다. 처음에는 이름이 신기해서 그런 줄 알았으나 미국과 한국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first name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한 때는 영세 받은 카톨릭 이름으로 바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심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영세 받은 이름을 들먹거릴 생각은 없었다. 여기서부터 이민 일세의 애환이 움트기 시작했나 보다.

세월이 흘러, 요즈음 나는 환자가 되어 의사를 만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러 가면 Dr. Oh라고 부르는 접수원이나 테크니션은 아예 없고 모두 Tae라고 부르며 발음을 제대로 하였는지 모른다면 친절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함께 간 아내는 Dr. Oh라고 고쳐야 직성이 풀린다. 손아래 사람이 버릇도 없이 뒷사람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니 듣기에 거북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는 면역이 되고 말았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악수를 하고 수인사를 나누며 통성명에 직함이 나열된 명함을 주고받기도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성만 기억하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다. 행여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성명을 다시 물으면 실례가 된다. 더구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남녀사이에 이름을 부르거나 묻는 일은 타부에 속한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처음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면 first name으로 충분하고 이름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면 알 때까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남녀사이에도 정상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정상이다.

한국은 부부라도 이름을 서로 부르

지 않는 것이 법이나 마찬가지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한국의 관습을 모르는 미국사람들은 궁급하다.

한국은 사회생활에 이름대신 사용하는 대명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으며 또한 존댓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때가 흔한데 미국은 마땅한 존칭이나 존댓말이 따로 없다. 미국에 오면 누구의 이름이든 부르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인턴시절, 주치의가 입원한 환자의 first name만 알려주고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면 입원 환자의 이름보다 병명만 아는 때가 흔하여 고역을 치르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영어가 낯선 이유도 물론이지만 한국에서처럼 환자이름보다 병명으로 환자를 식별하던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리스 여행을 하는데 목동이 양떼를 몰고 지나가자 관광 안내원이 세상에서 양이 가장 많은 나라가 그리스이고 다음이 한국이라고 했다. 한국에 가면 김양, 이양, 박양, 정양, 최양... 양이 헤일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란단다.

하루는 TV를 보다가 “여보” 라는 소리에, “왜 그래?” 하면서 선잠에서 깨어났다. 아내와 딸이 함께 보고 있던 한국 연속드라마에서 “여보” 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아버지가 낮잠을 깬다. 이런 코메디가 없다고 딸이 깔깔거린다. 한국 사람은 결혼하면 “여보” 와 “당신” 으로 호칭한다. 한데, 며느리가 시부모 이름을 상냥하게 부르는가 하면 사위가 장인 장모이름을 거침없이 부르며 대화하는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해도 아내가 남편 성(surname)으로 바꾸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니 이민 온 아내는 모두가 미세스 남편 성으로 불린다. 아마 남녀평등 인권운동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앞섰기 때문이리라.

하여튼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는 습관을 이민 온 지 반세기가 되는 지금까지 제대로 배우지 않고도 불편 없이 살고 있는데 새삼스레 들추어내야 본전도 찾지 못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지 동서양의 이질적 문화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융합되지 않는다. 쉽게 융합된다면 동서양의 문화가 따로 있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시계탑 영문 표기

미주동창회 신문은 1974년 창간호를 출간했다. 이때 한국말 표기는 시계탑, 영어는 Sigetop이라 하기로 했다. 가끔 Sigetap로 표기하는 분들은 Sigetop임을 유념하시길 바란다.

잠자는 미녀 증후군



정유석(64, 북가주)

19세기 초 독일인 그림 형제(Brothers Grimm)는 전국을 열심히 순회하면서 전래동화들을 수집해 책으로 발간했다. 그래서 그들은 19세기에 창작동화로 유명했던 덴마크 사람 안데르센에 비견될 만한 동화작가로 명성을 날렸다. 그들이 수집한 전래동화들 중에는 신데렐라, 개구리 왕자, 한젤과 그레텔, 백설 공주, 같은 수많은 전래동화들이 있다. 잠자는 미녀 역시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데에는 1959년 미국 영화회사인 월트 디즈니가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을 사용하여 장편 만화영화로 만든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옛날 옛적 서양의 한 나라에 공주가 태어났다. 기쁨에 넘친 왕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요란한 잔치를 차리고 마력을 지닌 그 나라 요정들을 초칭했다. 그들은 태어난 공주에게 각자 미모, 재능, 음악적 소질 등을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한 심술궂은 요정은 그녀가 물레질을 하다가 가시에 찔려 죽을 운명이라고 예언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요정은 사태를 알아차린 후 공주에게 선물로 죽음이 아니라 한 백 년 동안 잠에 빠진다고 사악한 예언을 완화시켰다. 왕은 전국에 명령을 내려 물레질을 모두 금지시켰다. 그러나 당시 못감이란 동양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비단이라든가 사냥에서 얻은 고급 동물 가죽이 있었으나 일반인에게는 물레질로 뽑아낸 직물이 가장 실용적이었다.

15세가 된 공주는 한 여인의 유혹에 따라(사악한 요정) 성 안에서 금지되었던 물레질을 배우다가 가시에 찔린다. 즉시 선향 요정이 나타나서 성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잠에 들게 한다. 이에 따라 성은 백년에 걸쳐 자란 영경귀와 덩불에 싸여 외부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진다.

백 년이나 지난 후 한 왕자는 그 지역에서 전해오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탐험해 보려는 흥미에서 덩불과 가시나무에 덮인 궁을 헤치고 들어가 마침내 잠자는 공주의 모습을 본다. 그녀의 미모에 반한 왕자는 공주의 입에 키스를 하자 그 순간 그녀는 잠

에서 깨어난다. 같은 시각에 성 안의 사람들과 동물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으며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

백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청소년들에서는 한 두 주일정도 깊은 잠에 빠지는 질환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이나 두 달까지 계속되기도 하며 보통 일 년에 두 번이나 세 번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다가 말고 한 두 시간 정도 침대에서 일어나 배뇨나 배변을 하고 포식을 한 다음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간다. 이들 중 일부는 잠시 깨어난 상태에서 평상시 볼 수 없는 과격한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잠에서 깨어 하는 행동은 마치 몽유병자나 술에 만취된 사람들의 행동과 흡사해서 나중에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 질환은 치명적이지 않고 청소년기를 지나면 스스로 사라진다. 주로 백인 남성에서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에서는 일반 백인에 비해 발병률이 6배나 된다.

이 질환이 처음 보고된 것은 1862년이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Willi Kleine와 Max Levin이란 두 독일인 의사가 이런 환자들을 여러 차례 경험한 다음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Kleine Levin Syndrome” 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후에 많은 사람들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공주 이야기와 연관시켜 그냥 “Sleeping Beauty syndrome” 으로 부른다.

이 질환은 원래 환자가 전 세계에 5백 명에 불과한 희귀병으로 알려졌으나 인터넷이 보급된 후 자기의 경험을 적은 케이스가 많이 올라서 그 빈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본다. 그래서 근래에 스탠퍼드 대학에는 Kleine Levin Syndrome Foundation이 조직되었다.

원인으로는 아마도 일종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들 환자들이 처음 장기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감기 같은 몸살을 앓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태 계통 청소년에서 일반 백인보다 6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면 어떤 유전적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학자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 아닐까 주장한다.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나 젊은 나이에 장시간 수면에 빠지기 때문에 성격이 저하되고 운동선수의 경우 팀에서 탈락하기 쉽다. 치료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각성제를 사용하면 잠에서 깨울 수는 있으나 환자의 몽롱한 상태는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깊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환자가 편히 잘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뉴욕지부 함춘의 밤

NOVEMBER 5TH (SAT), 2011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Tel: 201.836.0600

06:30 PM: Cocktail Hour by Sue Kim
& Complimentary Couple 사진촬영 by Kim, Jin Hong
07:45 PM; Dinner & Entertainment by DJ James Hong과 그의 악단

\$125.00 per person

Formal Attire / Black Tie
15 Rooms reserved at special rate at Teaneck Marriott (\$109/night)

뉴저지 Teaneck에 있는 Marriott Hotel에서 있을 대 뉴욕지부 Annual Ball “함춘의 밤” 이 11월 5일(토요일)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미있고 또 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Party를 기대해 봅니다. 즐겁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두 다 참석하셔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며 다시 한 번 오래전의 그 학창시절로 돌아가 우리도 “여전히 할 수 있다” 는 것을 우리 동문들과 후배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ply Card나 email, 또는 전화 등을 사용하셔서 ASAP, 늦어도 10월 23일 까지는 RSVP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고 건강한 대 뉴욕지부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11월 5일 토요일 Annual Ball “함춘의 밤” 에서 반가운 얼굴들의 많은 선�후배님들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면서...

백승원(79) 올립니다.

우리 동기생은 졸업 45주년 공식행사를 하와이 크루즈로 결정했다. 1966년 졸업생인 우리는 모교 의대졸업 이후 45년이란 긴 세월의 흐름을 가슴에 새기며 부부동반으로 실렘과 기대를 잔뜩 안고 참여했다.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이었지만, 이를 먼저 도착해서 호놀룰루의 Waikiki Resort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은 Oahu 섬을 일주했다. 오아후 섬의 주도인 호놀룰루는 1845년 카메하메아 3세가 왕국의 수도로 정한 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재 하와이 전체 인구, 약 130

만의 80% 이상이 모여 살고 있다. 이곳은 리조트 단지인 와이키키 해변, 다이아몬드 헤드와 교육의 중심점인 하와이 주립대학이 위치해 있다. 와이키키 해변은 하와이의 상징이다. 원주민 말로 '분출하는 물'이라는 뜻을 가진 Waikiki Beach는 인공으로 만든 모래사장으로 해수욕과 surfing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곳의 동쪽엔 Diamond Head라는 또 다른 명소가 솟아있다. 분화구 속에 나있는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몇 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휴화산 정상에 다다른다. 눈앞에 펼쳐지는 panoramic view는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걸작품이었다. 특히 이곳의 일몰(日沒)과 Maui 섬의 할레아칼라 산정에서의 일출(日出)은 환상적인 풍광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나우마베이(Hanauma Bay)는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산호초가 넓게 퍼져 있고 파도도 잔잔하여 시간만 허락되면 예쁜 옷을 입은 산호초와 다양한 열대어들을 친구 삼아 헤엄치고픈 마음이 간절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섬의 순환 도로를 따라 일주했다. 크고 작은 공룡들이 뛰어다니던 Jurassic Park의 영화 촬영지가 주뻗뻗한 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한때 나환자를 격리 수용했던 Molokai 섬이 그리 멀지 않았다.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이민 왔던 사람들은 처음에 사탕수수 밭과 파인애플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그 수는 1903년부터 3년 동안 총 7,226명에 이르렀다. 첫 정착지를 바라보며 우리 동포의 아픈 이민사가 배어 있는 현장이라서 잠시 숙연해졌다. 여성이 태부족이었던 남녀의 불균형, 사진결혼에 얽힌 슬픈 사연, 열악한 노동환경.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금을 모금했던 일은 정말 자랑스러웠다.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업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사탕수수밭은 이미 새우 양식장으로 변신했다. 파인애플 농업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오래 가지는 못할 듯하다. 생산가 상승으로 남미나 필리핀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설파하신 어느 성현의 말씀이 생각난다.

열대화가 사방으로 아름답게 피어있는 Polynesia Cultural Center에서는 뷔페로 점심을 시작하였다. 하와이, 사모아, 피지, 타히티 등 폴리네시아 7개국 섬나라의 문화를 보고 듣고 둘러볼 수 있는 축소판이었다. 카누를 타고 다니며 각 마을을 방문하고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뿐 아니라 훌라춤도 따라 해보니 기분이 고조되었다.

Dole Plantation에서 먹어본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은 아주 달고 맛있었다. 아마도 나무에서 잘 익은 탓일 게다. 당도가 높아 본토에서 먹던 것과는 확실히 맛이 다르다.

서쪽 해변 도로를 달리던 우리는 갑자기 교통 체증을 경험하였다. 운전수이자 가이드의 추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 모래사장에 가만 거북이가 낚잠을 주무시고 있었던 탓이었다. 솔뚜경보다 더 큰 거북이를 보고 넋을 잃은 구경꾼들이 인산인해였다.

진주만은 1789년에 진주조개가 채취되었던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으

넘는 항해 끝에 하와이 군도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778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카우아이 섬에 상륙하면서 하와이는 근대역사의 한 장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하와이 제도는 8개의 主島와 100개 이상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있고 해저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조만간 수를 하나 더 할 것이라 한다.

하와이 제도에는 뱀이 없고, 한때 멸종위기에 있던 State bird인 nene(기러기의 일종으로 네이네이라 발음함)라는 새는 보호를 받고 있다. State flower인 노란색 하이비스커스를 위시

와일레아(Wailea) 등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일명 계곡의 섬(VaileyIsle)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섬은 매년 미국 10대 아름다운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신혼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 마우이에는 할레아칼라 국립공원과 10개의 주립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16개의 골프코스, 그리고 81곳의 해수욕장이 산재해 있다.

Maui 육로관광의 하이라이트인 할레아칼라(Haleakala)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완만해 보이나, 높이가 3,055m에 이르며, 이는 백두산에 남산을 합한 높이이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여러 개의 휴화산 분화구들은 달의 표면을 연상케 했다. 세계 최대 size인 caldera 내면은 색상이 회갈색(greyish brown)으로 참 아름다웠다. 카아나팔리 유원지에 들려 절경을 즐기고, 1,000평의 땅에 여러 뿌리를 박고서 넓은 영역을 뽐내는 초대형 보리수(Banyan tree)도 Lahaina에서 볼 수 있었는데, 수령(樹齡)이 180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규모가 엄청나서 다시 한 번 놀랐다. Maui에서의 둘째 날은 16명의 친구들을 규합하여 Wailea Beach 탐험에 나섰는데, 이곳은 비교적 조용한 beach로서 해수욕과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인 불고기·매운 닭볶음 도시락과 cold beer는 환상적인 음식궁합을 선보여, 우리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66년 졸업 동기 하와이에서 만나다

鄭良秀 (66)



며, 이곳은 태평양 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더욱 유명하다. 1941년 12월 7일, "The Day of Infamy" 매스컴에서 들었던 FDR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맴도는 듯하다. 전몰장병을 기념하는 하얀 건물, Battleship Arizona Memorial 옆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상징하는 "Mighty MO" US Missouri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승선 수속을 마치고 보니, 한국동기가 15쌍, 미국동기가 26쌍, 도합 41쌍이었다. 저녁식사는 매일 같은 식당, 같은 시간이지만 자리배정을 이틀에 한 번씩 바꿨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또 식사가 끝나면 매일 저녁 사랑방에 모여서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흐뭇했다. Audio-visual system이 갖춰진 널찍한 Diamond Head Auditorium이 우리들의 전용 사랑방이었다. 음악을 곁들여 추억의 사진들을 slide show로 보면서 잠시나마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갔다. 50년 전의 풋풋한 젊음, 욕심 없는 순진무구의 우리 얼굴들, 여찌 감회가 깊다하지 않을 수 있으랴. 가라오케를 틀어놓고 독창과 합창의 무대는 물론, 재치있는 사회자의 농담으로 웃음꽃이 만발했다.

우리가 방문한 섬들은 Oahu, Maui, Hawaii(Big Island)과 Kauai였고, 몇몇 동기들이 각 섬을 분담하여 공부해왔다. 준비한 예습을 powerpoint projection으로 강의하여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틈을 내어 golf를 즐기고 들어오는 부지런한 친구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는 보통 점심시간이 되어야 만날 수 있었다.

Aloha!

하와이 원주민 사이에서 "알로하"란 사랑·친절·존경·이별 등의 의미를 지닌 말이지만 흔히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란 인사말로 쓰이고 있다. 서기 750년경 흑갈색 피부와 큰 눈을 가진 폴리네시아인들이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영혼의 고향을 찾아 먼 항해를 시작했었다. 고고학적 유적으로 볼 때, 남쪽의 마르케사스 섬 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2천마일이

하여 산뜻한 색상과 향기를 자랑하는 열대 꽃이 지천으로 깔려있으나 그 중에서도 하얀색 plumeria가 백미(白眉)인 것 같다. 하와이 꽃으로 만든 lei(레이)를 목에 걸 때마다 하와이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고, 보라색 양난으로 만든 것이 보통이나 플루메리아로 만든 레이는 향기가 일품이었다. 마우이 섬 할레아칼라 고산지대에서만 군생(群生)하는 희귀식물인 은검초(銀劍草)는 잎사귀가 은으로 된 칼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실버 스워드(Silver Sword)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사람의 손을 타게 되면 시들어 죽는다는 안내자의 말에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하와이 토속어는 영어 알파벳의 5개의 모음과 7개의 자음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음절 하나하나가 꼭 모음자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Hawaii주의 주산업은 관광이 단연 으뜸이고, 군사기지가 많아 주에 책정된 거액의 군사비도 무시 못할 수입원이다. 사탕수수가 소규모라도 경작되는 데는 Maui 섬 뿐이다. 원주민이 잘 먹는 Taro Root라는 식물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토란과 비슷하며, 보라색을 띠는 빵이나 dry chip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환태평양 중심부에 위치하여 항공·해운교통의 중심지인 하와이 제도, 특히 해군기지로써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진주만은 미국이 탐낼 수밖에 없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 때문에 하와이는 19세기말 미국에 합병되고, 1959년에 미합중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Maui 섬의 하이라이트

마우이 섬은 고요함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최고의 신혼 여행지로서 전 세계 신혼부부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와이 제도 중 두 번째로 큰 섬인 마우이는 인구 약 15만에 면적은 제주도보다 조금 크다. 마우이에는 하와이 왕국의 옛 수도로서 고대 문화의 발자취와 숨결이 숨어 있는 라하이나(Lahaina)를 비롯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휴화산으로서 웅대하고 장엄한 할레아칼라(Haleakala)화산, 그리고 낭만적인 해변과 최고의 리조트 시설을 갖춘 카아나팔리(Kaanapali)와

Hawaii 섬(Big Island)의 하이라이트

빅아일랜드(Big Island)는 그 이름 그대로 커다란 섬이란 애칭으로 더 유명하며, 하와이 제도의 다른 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넓고, 제 주도의 8배나 되지만 인구는 20만이 채 안 된다.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마우나케아(Mauna Kea)와 활화산인 킬라우에아(Kilauea)가 이곳에 있다. 이처럼 빅아일랜드에는 활화산에서부터 불모의 사막까지 생태계가 공존하고 다양한 온도와 고도, 기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해안 지역은 일반적으로 따뜻한 아열대 기후이고 고도가 높은 지역은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빅아일랜드는 하와이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으로 겨울철에는 이른 아침 휴화산 등성이에서 스키를 타고 오후에는 따뜻한 태평양 바다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꿈같은 섬이다.

인구가 적어 적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햇살이 좋은 코나(Kona)지방은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한 곳이다. 그런 탓에 이 지역에는 resort를 많이 볼 수 있다. Hilo를 중심으로 하는 동쪽은 비가 많이 오고, Kona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은 건조하다. 동쪽은 생강과 양파, 그리고 서쪽은 양란 재배가 활발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Kona coffee와 Macadamia nut은 이곳의 특산물이다. Big Island는 하와이 제도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며 약 80만년으로 추정된다. 만일 sea floor부터 측정하면 Mauna Kea가 33,476 ft.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만, sea level부터 재면 13,796 ft.이다. Hawaiian Volcanoes National Park에서 보는 분화구는 먼발치에서 김을 무럭무럭 내뿜기만 하지만, 길가에 <다음면에 계속>

이번 201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 세계 이비인후과학회에 9,000명의 인원들이 참석하였다.

개회 연사로서 생후 18달 만에 청력을 잃었지만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자라나서 1986년에 Oscar 상을 받은 할리우드의 여배우 Marlee Matlin이 참석하였다. 그녀는 이날 학회에서 농인들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그들을 위한 사회적인 보조운동을 하자는 연설을 하였다. 그녀는 "Children of a lesser God"에서 주연으로 출연하였던 배우인 동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가이다.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한 이 사회에 귀감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다.

지난 40여년을 본인은 이비인후과의 사로서 귀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고 청력이 아주 파손되어 고생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다.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 연세가 80-90이 넘어서 소통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하였던 분들과의 경험도 있었지만 그동안 의료인으로 접했던 환자들중 특히 청력을 상실한 농인환자들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든다. 그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고통을 짐작은 했지만 확실히는 몰랐던 것이다. 그들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전문의로서 나 자신이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요즈음 선진국에서는 의료혜택이 좋아지고 청력손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질병의 치료예방이 발달되어가고 있다.

보청기의 발달, 내이와우이식수술(Cochlear Implantation), 조기진단과 재활교육이 발달하여 점점 장애인들의 혜택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나라의 국력, 사회보장제도와 주변사람들의 이해에 의해서 크나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Matlin 같은 사회운동가의 활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둔다.

본인은 근래에 워싱턴 근교의 침례교 농인교회를 찾아보는 기회를 얻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개업하고 있었던 68년 정재성 동문이 매달마다 여러 가지로 특별 봉사를 하는 곳이다. 그는 나를 청력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실생활의 한 모습을 볼 기회가 있다면서 안내하여주었다.

이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장애인들이었다. 청력을 빼놓으

면 다른 겉모습은 보통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좋아보였다.

예배실에는 우리말 수화를 하는 장애인 목사님과 그의 말씀을 옆에서 영어권 수화로 번역하는 분 그리고 북을 치는 분 그리고 신도들이 25여명

이 되었다. 장소는 워싱턴지구천교회 지하예배당이었다.

우리가 도착하였을 때 이미 도착한 여러 명의 선남선녀들이 수화를 사용하면서 재담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고 우리는 목례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었다. 정시에 예배는 시작되었다.

이날 7살 때 청력을 잃었다는 보청기를 오른쪽 귀 뒤에 착용한 남자장애인이 수화설교를 음성언어로 통역하고 있었다. 성경구절 등은 스크린으로 영상이 비춰져서 모두에게 거의 불편 없이 예배가 진행되었다.

각 나라의 말이 다르듯이 언어마다 수화가 전혀 서로 다르다. 우리말 수화가 영어수화보다 간결한 듯이 보였고 영어수화를 하는 분은 그 동작이 무척 바빠다.

찬송가는 비교적 짧은 것이었다. 북소리가 반주를 대신하는 배경음악이었다. 발성이 가능한 몇몇 사람은 악보를 보고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도 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는 수화로 불렀다.

기도를 드릴때는 손으로 수화로 하는데 처음이지만 본인도 기도하는 동작의 한두 마디는 수화로 같이 표현할 수 있기도 했다.

설교의 내용은 진실과 겸손 그리고 이해, 회개라는 내용의 설교였고 창조주로부터 받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감사하고 성실히 살자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다. 장애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도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런 뜻 깊은 내용이였다.

찬송가라던지 북소리를 통한 그 음

파와 리듬이 참석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다. 북을 치는 사람은 그들이 들지는 못해도 그 울림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소리가 피부와 몸 그리고 두개골을 울려서 직접 뇌(청력 혹은 감각센터)에 전달된다고

농인(聾人)들의 모임 Deaf person's Meeting

서 윤 석(68, 오하이오지부)

한다. 동동 소리가 방을 울릴 때 그들과 같이 내 마음도 흔들린다.

여러 가지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청력장애인들보다는 지금까지는 시력장애인들이 더 쉽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보수집능력이 쉽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세부적인 의사소통이나 사회활동능력 등이 청력장애인들의 핸디캡이 더 높다. 심지어 가족이나 부부관계에서도 시력 장애인들이 더 유리하단다.

그러나 사람 나름이겠다. 헬렌 켈러(Helen Keller)같은 사람은 두 가지이상의 장애를 가지고도 대학교육까지 마친 훌륭한 장애인이 아닌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한 경우일 것이다.

의료혜택이 원활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청력장애인들의 질병진단은 대부분 확실할 것이다. 신생아 때부터 이 나라에서는 청력스크린을 잘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의료혜택의 보조와 재활치료와 (상급학교교육포함) 교육이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적인 인원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을 잘 지키고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와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한다. 이런 종교적인 교회활동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일례로 보였다.

이날 예배가 끝난 후 페루(Peru)의 수도 리마(Lima)에서 온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온 한 청년을 만났다. 스

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20세 된 자신은 장애가 없는 건강한 젊은이였는데 그는 양쪽 부모가 모두 청력장애인이란 것이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청력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확실한 진단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 사람처럼 의료시설이 부족한 빈곤한 나라에는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어린나이에 진단과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면 방지도 할 수 있는 미래의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의료혜택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의 안과 의사들이 방문하여 베푸는 개안수술로 시력이 회복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같은 나라에는 의료혜택이 주어지면 청력을 회복 할 수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현재 진행되는 청력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뇌센터의 연구,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청력보호운동, 보청기, 수술기술의 발달, 그들을 위한 건강보험의 협조, 등등은 모두가 청력 장애인들을 구하고자하는 우리들의 염원이다.

전 세계적인 사회운동가 Marlee Matlin이 말하는 바가 그것이다.

이제 좋은 의미에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시력을 잃은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로봇(Robot) 컴퓨터 세상이 오고 있다.

청력장애를 가진 선남선녀들도 인터넷의 발달로 시력을 통하여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텍스트 문자 메시지, 아이패드로 교신하는 그들의 빠른 손놀림, 영어권수화로 의사를 나누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을 이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보았다. 더군다나 이들은 아직 젊고 활기차지 않은가!

한편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이처럼 장애인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이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정재성 동문이 참 자랑스럽게 보였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이들에게 또 모든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면에서 계속〉 있는 구덩이에서는 뜨거운 강풍을 내뿜으면서 압력솥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어 무섭기까지 하였다.

산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黑色의 大平原인 lava rock field를 걷다보니, 생명의 강인함을 대변이라도 해주듯 자라나는 풀이나 나무들이 경이롭기만 하였다. 불덩이였던 지구의 변천사가 머리에 떠올라 자연에 대한 경외가 좀체 가시질 않았다. 마카대미아 냇과수원에 들려 견학하였다. 커피 한잔에 냇 시식도 좋았고 선물 사기에 도 좋은 곳이었다. 아름다운 Kulaniapia 폭포가 장관이었다.

Hilo를 떠나 밤 10시쯤 배가 Big Island 남단을 통과하게 되는데, 화산에서 나오는 붉은 용암을 볼 수 있다 해서 잔뜩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lava flow는 지난 3월 일본 지진과 쓰나미(津波)이후로 그쳤다고 하여 그 기대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 하늘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 인간으로서의 불가항력이었다.

Kauai 섬의 하이лай프

인구 6만정도의 카우아이 섬은 하와이 주요 4개 섬 중에서는 가장 미개발 지역이다. 생성과정으로 보면 하와이 섬들 중 가장 오래된 섬이다. 섬의 중앙에는 세계 3대 다우(多雨)지역의 하

나인 와이알레이알레이(Waialeale)산이 위치하여, 섬에 충분한 수량을 공급하고 있어서 섬 전체가 울창한 수목에



뒤덮여 있다. 그래서 카우아이는 정원의 섬(GardenIsle)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섬의 상징인 와이메아케년(Waimea Canyon)은 "태평양의 그랜드 케년" 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절경을 자랑한다. 쥬라기 공원 등 많은 영화의 촬영지로서도 이름이 나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도 많다. 오전에는 Waimea Canyon을 구경하고, 오후에는 Kilohana Plantation에서 쾌적한 시간을 보냈다. 유연한 울동의 하

와이 훌라춤이 참으로 불만했고 그 다음엔 하와이 뷔페식을 즐겼다. 땅거미가 지자 햇불을 켜놓고 하와이 고

전 연극이 상연(上演)되는데, 한 가족이 타이티에서 카우아이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겪은 심한 고초를 모두 극복하여 성공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졸업 45주년을 자축하고, 공동으로 칠순잔치를 치른 이번 모임은 기대치를 훨씬 넘는 성공작이었다. 축하, 축배, 축하, 그리고 cake cutting의 식순으로 치러졌으니 격식은 모두 갖춘 셈이다. 어디 그뿐이라. 한국동기 부인들이 합창한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고, 미국동기 부인들은 훌라춤으로 화답하면서 남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미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에게는 묵념으로 명복을 빌었고, 건강 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친구들을 아쉬워하며 기도하였다. 6년 내지 12년 동안 동문수학한 옛 친구들과 꿈같은 시간을 같이 즐겼고, 손에 손잡고 '지상의 낙원'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행복의 극치를 맛보았다. 보행이 어려운 문형동기가 참석하여 우리 모두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사진과 카메라의 달인 조의열 동기는 행사의 전속 사진사로서 맹활약을 했을 뿐 아니라 우리들 영정사진도 찍어주었다. 인물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무거운 장비까지 챙겨온 조 동문의 헌신적 봉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김진수 위원장을 위시하여 여러 준비위원들의 빈틈없는 기획과 집행으로 천의 무봉(天衣無縫)의 행사였다.

만나고 또 만나도 반갑고, 봉사와 사랑이 넘실대던 우리의 만남, 교회의 성숙함과 맞물려 관포지교(管鮑之交)도 경험하였다. 모쪼록 건강에 힘써서 건장한 젊은 오빠와 언니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하선(下船)하는데,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배움이란 것

나 수 섭(50, 메릴랜드)

내가 제일 처음 내 나라를 떠나서 외국 땅을 밟아 본 것은 1955년 2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이었다. 그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10년이 되던 때인데 그때 내가 본 도쿄(Tokyo)와 요코하마(Yokohama)의 시가지는 몰라도 도심지를 떨어져 나가서 본 일본의 모습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 로스앤젤스에 도착 하였다. 조국이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화 했던 때인데 최신 시설을 완비한 3,400 bed를 수용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Los Angeles County General Hospital에 도착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호화로운 미국을 보며 나는 아연 실색할 뿐이었다. 그 때 미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에 알려지기를 한국은 험벗고 가난한 나라, 인분(feces)을 비료로 삼으니 “honey-bucket” 로나 알려져 있는 판이었다. 그러니 나는 한국 사람으로 어디를 가나 기가 죽고 스스로 보기에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우리의 조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놓았으니 이제는 어디를 가나 어깨를 당당히 펴고 다니고 있다. 이 얼마나 굉장한 변화인가. 무엇이 이 기적을 이룰 수 있게 하였을까 생각해 보았다. 원동력이 되었던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특유한 “교육열”이라고 생각된다. 부모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녀들의 교육에 정성을 기울여 오직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교육”을 바라고 그것을 성취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내가 오랫동안 받들어 온 인생철학의 하나는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 즉 교육과 신앙을 통해서 뿐”이라는 것이다. 나의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진 비바람의 중심에 말려들었고 이어진 연대는 빠져나갈 길 없는 연쇄적 효과(domino effects)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의 세대는 살아 왔다. 거기에 더하여 우유부단하고 주변머리 없는 나인지라 어떤 일도 제때에 처리

하지 못하여 ‘만년 지각생’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소기(小器)이면서도 만성(晩成)의 길을 걸어왔다고 스스로 위로도 해본다.

여행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도 마찬가지로.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본여행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팔십 노력이 된 오늘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본은 전에 두 번, 미국에 오고 가는 길에 잠시 들렸을 뿐이다. 1996년에 3주일 간 구라파의 여덟 나라를 여행하였을 때처럼 이번의 일본 여행도 ‘Japan Rail Green Pass’를 갖고 젊은 마음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둘러볼 계획을 세웠다. 일본말에 능통함으로 조금은 마음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유럽의 기차 여행처럼 편리하게 잘 되어있을지 염려도 되었다. 여행사를 따라 다니면 편하고 쉬운것도 알지만 오래 전에 가졌던 꿈을 늦게라도 이루어보고 싶은 심정으로 모험을 시도하며 동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 살 적 버릇 여든 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좋았던 싫었던 간에 나의 성장기 초반의 만(滿) 10년 동안 “일본식 교육”을 받았었고 특히 중학교(지금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합친 것)를 평양에서 일본인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나에게 묘한 “회고의 정”(nostalgia)을 불러일으킨다. 순진했던 그 시절에 내 마음을 적시며 부여 졌던 인간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일본 사람들의 문물(文物)은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알알이 꺼지지 않는 향기로 자리하고 있음을 나는 부인 할 길이 없다.

한국에서 얼마 전 10년 동안 세력을 잡았던 ‘좌경(左傾) 정권이 ‘친일과 운운’의 소음을 자자하게 터뜨려 왔다는 말을 들었다. 일본 제국의 강압하에 있던 그 시기에 한국인 모두는 일제가 강요했던 식민 교육을 받으면서 할 수 없이 누구나 공립 혹은 ‘제국대학’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 일본인들로부터 수

많은 차별과 학대를 받았지만 과거사는 시간이 흐르면 미화되기 마련이니 수많은 역겨운 일들이 있었건만 그래도 나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왜인지 어린이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게 됨을 느끼고 있다.

7일만에 걸치는 일본 여행에 이어 졸업 50주년 행사에 다녀오고 나서 아직 미루고 있던 모국을 방문 했다. 양쪽 부모님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하지만 나에게만 두 남동생이, 그리고 내 아내에게도 오빠 한 분이 모국에 생존해 있다. 아직도 두 동강이 난 채로 존재하는 내 나라를 생각하면 분통함과 허탈감을 느낄 뿐이다. 모국을 떠나 살기를 이제 42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다. 강산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기 마련이다. 한국이나 미국의 양상도 그 동안 네 번은 변했겠다. 이러한 이치를 생각하면 같은 민족이면서도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Korean-Korean)과 미국에 사는 한국사람(American-Korean)사이에는 이제 분명히 어떤 이질감이 형성 되었겠다고 나는 생각 해 보는 때가 많이 있다. 들리는 소문이나 또 실제로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지금 모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내가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육군 장교로 있을 때 십여 년 전 사병들을 교육시키는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젊은 사병들이 ‘한국의 적은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다’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무척 놀랐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여기를 방문했던 나의 공군 시절의 친구가 하는 말이 한번은 같은 나이 또래(70년대 후반)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친북파’를 놓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옆 자리에 있던 4-50세의 사람들이 일어나다가와 험한 인상을 하며 “당신들 말조심하시오” 하면서 살기가 등등함을 보고 자기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 나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또 최근에 한국에서 많은 후배 양성 교육과 국내외문제를 다루며 옳은 말을 많이 언론에 실리고 있는 내 아내의 동기 동창이며 대한민국 초대 여성 주 러시아(Russia)대사를 지낸 李仁浩 博士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 인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교육의 역사 교과 내용을 올바르게 바꾸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이것을 교정 하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친북파’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수 없이 같은 양상의 이야기를 나는 많이 듣고 있다.

오래 전부터 모든 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국의 ‘교원 노조’는 ‘극 좌’이고 북쪽의 선전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들어 왔다. 그러니 누구나 뜻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앞날에 대하여 개탄하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위정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촌각을 다투어 이것을 바로 잡도록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 교육과정에서 修身 教科를 폐지한지 이미 오래 되었고 양심과 도덕관념은 쇠퇴 일로에 있다. 문란한 성 행위를 부추기게 된 결과 이혼율과 인공 유산율은 이제 세계 1위에 도달 하였다.

1945년 해방 직후에 평양에서 중학교 교원이었던 나의 사촌 형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는 교원 대표로 소련(Soviet Russia) 모스크바(Moskva)의 교육계를 시찰하고 돌아와 하는 말이, 그 나라에도 엄연한 계급 차(差)가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 들: 즉 공산당원, 상급 군인과 학교 교원만이 우대 받고 있음을 보았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이른바 공산 국가에서는 얼마나 아동들에 대한 사상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사실이었다. 대한민국과 접경 해 있는 북쪽 공산당도 물론 똑 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만은 보는 눈도 또 들을 귀도 없다는 말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장래를 확고히 세울 정치인은 다 죽었다 말인가? 사리사욕과 개인주의에 빠져 눈 먼 자들의 죄악상을 하루 빨리 발본 채신하고 정의심과 양심이 확고하며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 정치인이 하루빨리 선출 되어 國基를 다시 바로 잡으며 나라의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인성 교육을 시켜주기를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백의민족의 한 사람으로 나는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기원하고 있다.

육(六)氏

허선행(64, 대뉴욕)



성씨는 가문의 상징이며 또한 자신의 존재 및 국가적 이미지가 따라다니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진 못했지만 자기만의 것이 인 것이 바로 성씨와 이름이다. 미국 땅에 살면서 늘 여러 성씨를 보아왔고 아마 누구라도 어느 성씨를 볼 때마다 이는 어느 나라 출신 또는 어느 민족의 자손일까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그 출신을 물어보기가 힘들 때가 많았다. 많은 흑인들의 성씨는 영국계통, 아니면 유럽 어느 나라의 성씨들과 같아서 직접 면담을 하기 전엔, 과연 이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를 모르게 될 때가 많았었다.

지금은 많이 변해서 우리 한국인이 어느 사회에서나 뚜렷이 알려졌고 구분되지만 20-30년 전만해도 우리들을 보는 미국인들한테는 우리 모두가 중

국인 아니면 일본인으로 간주될 때가 많았으니 그 당시엔 슬픈 감도 없지 않았고 또한 화도 났던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고유민족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던지, 아니면 동양인으로써 어느 나라 국민인지 뚜렷이 인식되어 있지 않았으니 이것이 모두 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던가!! 누구를 닮았든 무슨 소용이 있었겠고 시간과 노력과 민족의 우수성의 발전이 꾸준히 필요했던 것이다. 이 반면에 우리도 어느 다른 민족을 우습게 알기도 했고 질시와 능멸감을 가진 적도 있었고 아직도 그러하니 사회적, 경제적, 법적요소가 우리의 인식을 흐트러 놓았던 것으로 본다.

세계의 경제, 과학, 영화, 신문, 음악 그리고 정치까지 어느 면에서나 앞장을 서고 있는 그 민족성의 꾸준함, 끈질기고 철저하면서 때로는 파렴치한 것 같은 국민성을 가진 그 사람들의 민족적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두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오면서도, 우리들은 우리들을 동양의 “유” 씨라고 불려오면서 우선 남의 장점은 항상 본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 습관, 언행은 빨리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따

지고 보면 안 걸리는데 없는 우리들의 생활태도, 습관, 언행, 예의 등등 그저 겉나게 많고 또 실망스러운 부분이 부지기수라면 과연이라고 할까? 최근에 누가 말했듯이 현대판 한국인의 8가지악의 하나는 “분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며 이러다보면 언제 갑자기 지구상에서 저주받은 나라나 백성이 될까봐 노망스러운 걱정뿐이다.

사실 성씨 이야기하다 탄소리를 하게 되었는데 본론으로 돌아간다면 최근에 만난 미국 인종에서 Six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숫자로 표현되는 성씨를 처음 보는 내 좁은 소견으로 신기하기만 했다.

아마도 여섯 사람이 관련되어 낳은 자식이 결국엔 Six라는 성씨를 갖게 되지는 않았나? 하는 못된 생각도 해 봤다(예를 들어: 모계사회). 그러다보니 미국이나, 특히 유럽에선 숫자로 된 성씨가 제법 있었으니 2씨(Deax), 6씨(Sixths, Sextus-Saint or Pepe), 8씨(Huit)그리고 10씨(Dix)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한국에선 이런 숫자로 된 성은 없지만 발음상 이씨(2), 오씨(5), 육씨(6),---등이 있는 것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다. 성씨를 논하고 족보, 가문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분수를 알면서 말 한마디, 행동

효자동 종점

신영철(59, 메릴랜드)

중앙청 앞을 돌아서면
진명 아가씨들이 내리고
전차는 북악산을 바라보며
긴 오르막길을 오른 다음

“효자동 종점 다 왔습니다아...”

청춘과 중년을 돌아서면
친구들 친척들이 내리고
이승은 저승을 바라보며
긴 내리막길을 내린 다음

“인생 종점 다 왔습니다아...”



하나 하나가 남을 배려하는 상식적인 예의, 생활의 예의를 누구나 뚜렷이 가질 수 있는 국민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정신 공학

PSYCHOENGINEERING

이 원 택(71, 남가주)

제1과 뇌라는 기계

정신공학(psychoengineering)이란 말은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저자가 새로 만들어낸 말이다. 우리의 신경계통은 수많은 부속품을 가지고 있고 어느 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 있으나, 무슨 일을 할 때는 빈틈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 초정밀 고성능 기계에 비견할 수 있다.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부속품들이 질서정연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하고 그 지휘계통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며 기계들이 연결되는 곳에는 윤활유가 있어야 삐걱대지 않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중에서 사람의 몸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사람의 몸 중에서 뇌만큼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정신공학을 연구하다보면 저절로 감탄해 마지않나니 이와 같은 역사는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사람의 몸은 만능의 기계이다. 어떤 이는 팔다리 근육을 활용해서 미식축구도 하고, 어떤 이는 심신을 바쳐서 화끈하게 사랑도 하고, 어떤 이는 머리를 짜내서 시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계가 고장 나지 않고 녹이 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뇌의 구조를 보면 제일 밑바닥에 뇌줄기(brain stem)가 있고 그 주위를 후뇌(hind brain: 숨골이라고도 함), 소뇌, 대뇌가 둘러싸고 있으며 사람과 같은 영장류에서 제일 발달된 것이 뇌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뇌인데 이는 다시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로 나뉜다.

특히 사람에서는 모든 사고를 총괄하는 전두골이 발달돼 있는데, 이 전두골과 뇌줄기 사이에 소위 변연계라는 것이 있어서 포유류의 특징인 감정을 조절해 주고 있다.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정이 많으면 대형우울증이 생긴다고, 고민을 하지 못하게 전두엽절제술(frontal lobectomy)을 고안해 낸 소백정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노벨상을 탔으나, 정을 끊는 방법으로 전두엽과 변연계를 차단시키는 대다발 절제술(띠이랑 절제술, cingulectomy)을 개발한 개백정은 노벨상을 타지 못했다.

제2과 변연계 (limbic system)

아마도 이 말의 어원은 눈의 각막과

결막의 연결부위를 나타내거나 (limbus), 몸통에 붙어있는 팔다리를 지칭하는 limb에서 나온 모양인데 그 뜻은 가장자리, 또는 연결지점이라고 보면 된다. 무엇의 가장자리냐 하면 우리의 생명력 유지에 절대 필요한 뇌줄기를 둘러싸고 있으며, 무엇을 연결시켜주냐 하면 고등동물로 행동할 때 필수 불가결한 대뇌 피질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변연계의 '계' 글자는 태양계 할 때의 '界(계)' 자와 마찬가지로 변연계는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태양계처럼 여러 가지 행성이 모여서 이루어진 일종의 소우주로서 그곳의 태양은 시상하부(hypothalamus)이고 그곳의 지구(가장 생동력이 넘치는 곳)는 편도(amygdala: 지진, 태풍, 화산폭발 등의 진원지)인 것이다. 예전에는 이 변연계를 후각뇌(rhinencephalon)라고 불렀는데 이는 쥐 실험에서 후각과 감정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람에서도 말초신경 중에 이 후각만큼 예민하고 강력하고 원초적인 것은 없다. 아무리 둔한 사람이나 어린 애라도 지독한 땀냄새에는 금방 얼굴을 찡그리고 향긋한 꽃냄새에는 얼굴을 활짝 펴게 되는 것이다. 많은 동물들이 발정을 하면 암내가 나고, 이 암내를 맡은 숫놈들은 환장을 한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남들께서도 암내를 피우는 여자도 있고 암내를 맡고 길길이 뛰는 남자도 있다. 후각뇌가 발달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대뇌가 덜 발달된 사람이란 말도 된다.

그리고 해마를 빼면 신경세포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재생이 되는 것이 이 후각세포인데, 여자가 임신을 하면 냄새를 인지하는 세포들이 다량 사망함으로써 임신초기에 입덧을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임신후기에는 새로 나올 태아의 냄새에 맞는 후각세포가 자라나나니, 이는 창조주께서 남편 냄새 대신에 새끼 냄새에 더 익숙해져서 제 새끼 잊어버리지 말고 잘 키우라는 계시인 것이다.

제3과 시상하부

이와 같은 감정중추, 변연계에 연결된 부위는 분노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편도(amygdala),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hippocampus), 분노와 공포심을 억제하는 중격(septum), 통증에 중요역할을 하는 대상속(cingulum), 모성애의 본산인 유두체(mamillary body), 모든 내분비기관을 관장하는 시상하부

(hypothalamus), 그리고 사고력의 집결지인 전두골 피질(frontal cortex)등인데, 이때 변연계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연결고리(synaptic connection)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즉 냄새를 맡고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는 즉흥적인데 시를 읽고 감동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시상하부로부터 후각돌기보다 대뇌피질이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변연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상하부(hypothalamus)인데, 이는 변연계의 모든 부속기관과 networking을 하면서 뇌하수체를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내분비기관을 관장하고, 뇌줄기와 척추를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자율신경계통을 관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상하부의 안쪽 전시각 부위 (medial preoptic region)는 성행위와 관련이 있고, 바깥쪽과 안쪽 아랫부분(lateral and ventromedial region)은 배가 고프거나 부른 감정을 관리하며, 상부교차핵(suprachiasmatic nucleus)은 매일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생리현상(circadian rhythm)과 관계가 있다.

제4과 자율신경계 - 의비의 쌍곡선

원시인들이 배가 고프면 사냥질을 나간다.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쫓아갈 때는 내가 요리로 가면 저놈은 저리로 가고, 내가 저리로 가면 요놈은 요리로 갈 것이라고 쫓구를 굴러야 되나, 집에 와서 토끼를 구워먹고 느긋하게 낮잠이라도 잘 때는 밥통이 알아서 잘 소화를 시켜준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을 하고 하는 일과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있는데,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하는 일을 주관하는 것이 자율신경계통이다. 바쁜 세상에 일일이 심장 박동수까지 계산하고 소화효소의 분비량까지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번에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주관하는 뇌의 부위가 시상하부라고 했는데, 우리 몸의 모든 자율신경을 주관하는 부위도 바로 시상하부이다. 이 시상하부에서 뻗어 나온 전선줄들이 뇌뿌리를 통해서 척추로 내려온 후 눈, 코, 심장, 신장, 소장, 대장, 췌장(이자), 비장, 간장 등등 각종 장기에 분포되는데 이때 반드시 전선이 짝을 저서 내려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교감 신경계통과 부교감 신경계통이 바로 그것이다.

제5과 음양의 조화

한마디로 교감신경은 양극(+)이고 부교감 신경은 음극(-)이다. 교감신경은 전쟁 상황이고 부교감신경은 태평성대이다. 우리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가동되는 신경이 교감신경인데, 적을 만났을 때 눈동자가 커져야 잘 살펴볼 것이고, 숨이 가빠지거나 심장의

박동이 빨라야 근육에 많은 양의 산소와 피를 전달할 수 있고, 혈관을 수축해야 상처를 받았을 때 출혈량을 최소로 할 것이며,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야 혈당량도 올라가고 뇌의 편도 등을 자극해서 공격적으로 될 것이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전쟁 때 써버린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성장 호르몬 분비도 촉진시켜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는 것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고, 그 대신에 음식을 소화하는 등 기초대사를 튼튼히 한다.

저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등잔만 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타는데 어떤 애들은 눈이 계승츠레 해지고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는 애들도 있다. 전자는 여자가 잡아먹을까 봐 도망갈 궁리만 하는 교감신경이 예민한 축이며 후자는 여자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부교감 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이 교차되는데 비근한 예가 남자가 성행위를 할 때 남근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선 남자가 발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온하게 안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자가 저절로 발기되는 시간도 부교감 신경이 관을 치는 새벽녘이다. 그런데 이놈을 여자가 손으로 건드리기라도 해서 흥분시키면 부교감 신경은 수그러들고, 전쟁을 시작하는 교감신경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해서 숨도 가빠지고 가슴도 벌렁벌렁 뛰다가 막바지에 오르면 참지 못하고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즉 항상 교감신경 항진상태에 젖어 있으면 발기도 잘 안 될 뿐더러 발기가 되더라도 불안하고 초초한 상태에서는 금방 짝 싸버리는 소위 발기부전이나 속사포 사정(premature ejaculation)을 하고 만다.

즉 자율 신경계통도 완전 자동이 아니라 대뇌 피질이나 변연계의 영향을 받는 반자율(semi-autonomic: 저자가 지어낸 말) 장치라는 말인데 이와 같은 성질을 응용해서 개발한 치료법이 소위 말하는 생리적 되먹이기(biofeed back) 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긴장이 되면 골치가 아파지는데 이는 머리의 양쪽에 있는 temporal 근육이나 목덜미에 있는 nuchal 근육이 팽기기 때문이다. 이때 근전도(electromyogram, EMG)로 근육의 흥분상태를 볼 수 있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로운 광경 등을 상상하면 도표의 수치가 낮아지면서 두통도 없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습, 반복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각종 두통이나 고혈압, 부정맥, 천식, 간질 또는 어린이들의 똥싸개, 오줌싸개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호에 계속>

농담 골목

어린 아이가 상점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상점 직원이 아이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좀 생각하다가 "비싼 위스키와 젓이 큰 여자요." 라고 했습니다. (면)

아이가 어머니에게 알리기를 자니는 버스를 타고 집에 올 때 서서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양보하라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가 여자에게 너무 좁지 않았니?" 하고 물으니, 아이가 그 자리는 아버지 무릎위 었다고 했습니다. (면)

아내: 여보, 만약 10분 뒤에 세상이 망한다면 당신은 뭘 하겠어요?
남편: 응, 10분밖에 안남았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과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지.
아내: (곰곰히 생각하더니) 그럼 남은 9분 동안은 뭘 하죠? (이덕승)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의 영화관에서 손과 팔굽과 목덜미에 키스하는 장면을 보시다가, "에잇, 저 녀석들은 키스를 어디다 하느줄도 모르냐?" (이덕승)

당신 그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야기를 들었소?
그러므로, 그 조종사가 추워서 선풍기를 켜드립니다. (허)

한 간호사가 은행에 들렀다. 수표에 사인을 하려고 주머니에서 펜인 줄 알고 꺼내보니 체온계였다. 간호사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어느 항문이 내 펜을 삼켰지" (허)

카톨릭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후 퇴원을 하게 된 환자에게 수녀 간호사가 청구서를 보였습니다. 환자가 자기에게 돈이 없다고 하니, 간호사가 그의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자기에게 결혼을 하지 않은 수녀 누이 동생 하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기를 "우리들 수녀가 왜 결혼을 안했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그러면 그 청구서를 내 매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철)

한 아줌마가 옆집에 갔다오더니 무척 화가 났습니다. "옆집 여자는 생일 날 남편에게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당신은 내 생일에 통닭 한 마리로 때우니 섭섭해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기를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쁘다면 그런 화장품이 왜 필요하겠소?" (김세-)



한기현(63, 대뉴욕지부)

2011년 서울의대 실버 프로젝트 여행은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알프스로 결정되었다. 원래는 다뉴브 리버 크루즈가 계획되었는데 작년 가을 다뉴브 강의 오염사고로 변경하게 되었다.

참석자(존칭 생략) 1958년 김해암, 이만택, 1961년 김성준, 김영철, 1963년 한기현, 1964년 권정덕, 허선행, 1966년 민발식, 1967년 한영수, 1968년 김주평, 1971년 강태수, 김유식, 박진국, 정인용, 1972년 오용호, 1973년 나두섭, 1979년 최대영 그리고 뉴저지 정지영 회장, 텍사스의 황해신 교수와 엄옥금, 정수자 여사 등 40명 이었다.

5월 13일 뉴왁 공항을 떠나 다음날 아침 제네바에 도착 후 John Calvin 종교개혁 기념비와 엄청나게 큰 꽃시계를 보았고 비가 오는데도 몽블랑을 찾아 갔으나 일기 때문에 등정을 못하여 며칠 동안 白山 타령을 하였다. 다음날은 Lausanne에 가서 올림픽 박물관을 구경하였는데 서울 올림픽 사진은 꽤 있었지만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못 본 것이 섭섭했다. 입구에 커다란 남자 상체의 조각이 사면으로 흠어져 있다 합쳐다 하는 모양이 인상적이었다. Montreux로 갔는데 Freddy Mercury가 와서 살다 죽었다해서 큰 동상을 세우고 그 이름의 재즈 페스티벌까지 한다는데, 재즈에 문외한인 나는 그가 이처럼 유명한지는 이변에야 알았다. Chaplain, Hemingway가 살았다해서 더 유명할지도 모른다. 곧 근처에 있는 시용성(Chateau de Chillon)을 구경했는데 이곳은 스위스 달력마다 나온다고 한다. 成 자체가 호수위에 떠 있는것 같았고, 외적을 막기 위해 비밀 통로도 있고 감옥도 있다. 어떤 변소는 높이가 한 사층으로 되어 있어 소변보기가 아슬아슬 했을 것 같다.

5월 15일은 호수 사이에 있는 Interlaken에 갔는데 이곳은 Jungfrau (12,642 ft.) 등반의 입구가 된다. Jungfraujuich(11,330 ft.)까지 톱니바퀴 기차를 세 번 갈아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전망대가 있어서 쉬면서 올라간다. 高山病 방지를 위해 적응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기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얼음을 깎아 만든 얼음동굴을 지나는데 얼음 조각을 통로에 많이 만들어 한층 운치가 있어 보였다. 옷을 몇 벌씩 꺼입고 머리도 싸고 장갑도 끼었는데 밖에 나가니 온도도 훨씬 영하였지만 바람이 어떻게 센지 순식간에 얼굴과 손끝이 얼어붙으며 아파졌다. 3,000미터 이상의 산들은 모두 만년설로 뒤덮여 눈보다 얼음판이 된 듯했다. 저녁은 민속음악을 들으며 fondue를 먹었는데 fondue도 치즈 외에도 네 가지나 된다고 한다. Mrs. 이만택의 선창으로 아리랑도 부르고 여러 동문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고 악기도 만졌다.

5월 17일은 Leukerbad라는 깊은 산속의 온천장을 찾아 가는데 길이 얼마나 가파르고 굴곡이 많은지 이태리 Amaffi 가는 길이 연상되었다. 우리 버스를 통째로 기차 속에 싣고 알프

스 산을 넘는데 버스 양쪽에 공간이 20인치도 안 돼 보였다. 호텔에서 야외 온천을 즐기고 하루를 쉬었다. 길가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십자가 묘비는 거의 다 삐걱 같은 지붕을 만든 것이 눈에 띄어서 지붕이 십자가를 눈에서 보호하는 것 같아 보였다.

5월 18일은 Zermatt에 도착했다. 이곳은 20세기 영화사의 logo로 유명한 Matterhorn 산으로 가는 길목인데, 대기 오염이 Matterhorn의 웅장한 모습을 막을까 해서 개솔린 차의 통행을 제한해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Matterhorn이 제일 높지는 않지만 유명한 것은 근처에 같은 높이의 산들이 없어서 유난히 돋보이기 때문이란 다.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오는데 두 시간 이상 걸린 것 같다. 경사가 급하고 오랜만에 힘든 내리막길이어서 그랬는데 모두가 다음날 버스를 타는데 여기저기서 '아이구구' 하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다음날은 일행 중 여덟 사람이 Matterhorn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9홀 코스를 두 번 돌았다. 많은 홀들이 Matterhorn 산을 배경으로 공을 치니 그린피(80 스위스 프랑)가 아깝지 않았다.

5월 20일은 이번 여행의 정수라 할 수 있는 Glacier Express를 타고 한 번 씩 후에 Chur에 도착했다. 기차가 알프스를 넘어가며 산, 호수, 전원, cholet, 목장 등 마치 여러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았다. 맛있는 네 코스의 점심을 좌석에서 대접받았고, 모두 사진 촬영을 하느라고 바빴다. 다섯 시간이 넘는 기차 여행 중 김유식 동문이 침을 많이 가지고 와서 허리병, 두통, 알러지 등 많은 환자들에게 침을 줬다. 귀에 열 대여섯 개의 침을 꽂은 채 걸어서 다녀 침을 꽂은 귀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김동문의 치료가 여러 동문들의 지병을 완쾌시켰으면 한다. Lucern에 도착해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라는 Cahpel Bridge도 보고, 이 도시에서는 꼭 보여 주는 Lion Monwast도 보았다. 1792년 불란서 혁명당시 800명의 스위스 병사가 파리의 왕궁을 수호하다가 모두 전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석조 동상이다.

5월 21일은 스위스 최대의 도시 취리히에 갔다가 독일의 black forest를 지나 유럽에서 제일 크다는 Rhinefall 폭포를 보았는데 너무 작아서 구경거리가 안 되는 듯싶었다. 이차대전 후 독일이 돈이 없어서 black forest 나무를 팔아서 부채를 갚았다고 했는데 독일인들이 투표로 반대해서 유지됐다고 한다.

5월 22일 무사히 뉴왁에 도착하여 즐겁고 인상에 남았던 알프스 여행을 마쳤다.

스위스는 26개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자기들의 정부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세율이 각 주마다 다르다고 한다. 인구는 뉴저지와 비슷한 7백 90만명이고 크기는 메릴랜드보다 훨씬 크다. 사용되는 언어는 네 개(German

64%, French 20%, Italian 6.5%, Romaines 0.5 %)인데 모든 공문서에는 네 개 언어를 다 사용한다고 한다. 개인 소득은 평균 4만5천불이 넘고, 수출품은 chemical, electronics, watch 등이다. 금융업이 크게 발달되어 비밀구조가 많은데 EU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가입하면 구좌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위스는 유로를 안 쓰고 스위스 프랑을 쓰는데 1 스위스 프랑이 1.2달러 정도였다. 1815년 중립국이 되었고, UN에는 2002년에 가입했다. 이차대전때 이탈리아가 스위스를 정복하려고 하자 스위스에서 모든 터널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여 침략을 막았다고 한다.

스위스는 산, 호수, 터널의 三有國으로 알려져 있지만 700개가 넘는 bridge를 계산하면 四有國이 적합할 것 같다. 13,000 ft.가 넘는 산이 100여개고 Monte Rosa(15,303 ft.)가 제일 높다. 군대는 징병제로 20~34세의 남자는 일년에 18~20주를 훈련받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총기와 탄약은 각 개인의 집에 보관하다가 훈련때 가지고 온다고 한다. 그렇지만 총기사고는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미국이나 한국이 같은 조건이라면 총기사고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스위스가 안전하기는 한 것 같다.

건강 보험은 모두가 개인 보험을 가져야 하고 모든 보험회사는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며 GNP의 11.5%를 건강에 쓰고 있다고 한다. 평균 수명은 남자 79세, 여자 84세라고 한다. 스위스의 공식 종교는 없고 국민의 42%가 카톨릭, 35%가 개신교인데 회교 인구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카톨릭 수가 조금씩 줄어들어 옛날 성당으로 지은 건물이 요즈음은 개신교 교회로 사용되는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도시에는 성당과 교회가 하나씩 있고 모든 성직자는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지금은 외국인인 22%가 되는데 대부분이 독일인이라 한다. 20여 년 전에는 스위스 시민 되기가 어려웠는데 요즈음은 13년만 거주하면 시민신청서가 오는데 앞으로 받을 공문을 어떤 언어로 할 것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니 시대가 많이 변한 느낌이다.

스위스에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다. 카메라의 배터리가 나가서 가게에 가니 AA 배터리 두 개가 12.9 스위스 프랑(16 달러)인데 여기서는 코스코에 가면 40개 이상 살 수가 있다. 골프장갑도 39 스위스 프랑이니 45달러가 되는 셈이다. 식당도 entree가 대개 30~38스위스 프랑(36~45달러)이니 어떻게 먹소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며 와인, 맥주 등을 식사 때마다 사서 유럽에 온 기분을 만끽한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내년 발틱 3개국 여행도 많이 참석하기 바란다.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

방준재(70, 대뉴욕지부)

C는 그녀의 회사 사무실로 나를 안내했다. 지난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이었다.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 앉아있던 직원들이 내게 인사를 한다. 기분 좋은 친절함 이었다.

그녀의 데스크가 있는 사무실에 나를 두고 그 사이 못 다한 일이나 지시가 있는지 한참이나 나를 자기 방에 두고 나갔다. 두리번거리며 방에 걸려있는 그녀의 옛 모습이나 화분의 꽃을 감상했다. 앉아있는 자리의 정면에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 그녀가 관장하는 체인 스토어가 각지에 깔려있는 것을 보았다. 280여개라 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미안하고 겸연쩍은 듯 다음날 회사 방문하는 일 본회사 때문이라 했다. 이어지는 설명은 중국에도 벌써 나가있는 글로벌화 과정이라 했다.

C는 뉴욕에 살다 한국을 오가며 고생고생 끝에 이제 10년을 맞으며 회사가 좀 자리를 잡는 듯 하다고 했다.

"대단합니다. 고국이라지만 이 낯선 땅에서 이만큼 이뤄가는 그 정열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신 후 뿌듯한 가슴으로 그녀의 회사를 나왔다. 바깥은 영락없는 봄기운이 완연했다.

닥터 H는 나의 서울의대 동기 동창이다. 졸업 후 간간히 그의 근황을 듣고는 있었지만 둘 간의 소식은 단절되었다. 그 긴 의대과정을 예과 때부터 배구를 같이 한 K 고교 출신이다. 군대 제대 무렵 서울에서 근무할 때 대학에 남아있던 그가 무슨 마약 문제가 있는 듯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미국 이민 후 소식 두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엇그제 미주동창회 웹페이지에 그의 사진과 미주한국일보 LA판에 그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옛날처럼 햇된 그의 정면 사진과 센세이셔널한 기사 제목은 "중독자 치유 앞장서는 중독 3관왕" 이라 했다.

부리나케 나의 이메일 주소와 내 셀 폰 번호를 댓글로 달았다. 내게 연락 하라는 메시지도 달았다.

전화가 왔다. 얼마만인가 생각도 하기 전에 나는 반가웠다.

"좋은 일 하는구나." 하는 나의 말에 "20년 되었어요."라고 그는 답했다. 우리의 간단한 대화 후 나는 그가 의사로서 "나는 예전과 마약 중독자였다"며, 그 경험과 의사로서의 전문지식으로 타 중독자를 도와주는 그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었다.

가끔씩 전화라도 하며 그를 북돋아 주리라 다짐하고 있다.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 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원고는 가급적 1면이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종교적인 내용과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은 사양합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해주시요.
- 원고는 한글이나 Word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혹은 CD 는 환영합니다 .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제 29차 Scientific Convention을 준비 하며

지난 몇 년간의 학술대회를 돌아 보면, 지난 7월 Denver를 필두로 연사들의 강연 내용이 무척 높아 지고 있다고 느껴 집니다. 참가하는 동창들의 수가 저조함이 유일한 옥의 티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정년 퇴직 동문 수가 늘어 나고 있다:

저희 동문들의 평균 연령이 70에 가까워 졌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시는 많은 선배님들을 보면 정년 퇴직이 Convention 참석 수의 저조함의 가장 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퇴직하신 동문들의 참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Registration fee 등 비용 절감 등을 구상을 하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재미가 없다:

거의 모든 동기 모임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욱 회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 Convention과 동기 모임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학년이 Cruise 및 Golf Reunion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Jack Nicklaus가 설계를 한 마치 그림과 같은 45홀의 골프코스에서 그립던 동기 분들과의 재회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구상을 못하신 학년들도 학년 대표를 중심으로 즐거운 동기 모임을 이 기회를 통하여 의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Key West 등 많은 관광코스가 즐비 합니다.

골프나 동기들과의 모임 외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예로 손자손녀들과의 Disney World, Universal Studio 등 가족 단위의 여행이 가능한 곳이니 한껏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강조 사항

* 1월 20일 (금요일)

첫 날 오후 4시에 Delegate Meeting이 있고, 저녁 7시에 Class Reunion, Fashion Show 및 Talent Show가 있으므로 가능한 도착시간이 이른 비행기 편의 예약을 부탁 드립니다.

* 1월 29일 (일요일)

Cruise를 마치고 돌아 오는 날, 이 날의 비행기 예약은 오후 1시 이후 출발 비행기 예약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권정덕, 김재석, 서인석, Convention committee 위원장 드림

Talent Show 출연자 참가 신청

7:00 P.M. Jan. 20th(Friday),2012

매 Convention 마다 Talent Show에 참석을 해 주셔서 빛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Convention이 거듭할수록 주요행사의 하나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Talent Show를 2012년 Convention에서 좀 더 흥미롭고 참신한 Program으로 진정한 동문들의 축제 마당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부부의 장기 자랑은 물론이고 이외의 동기 가족들의 참가 혹은 어느 단체의 performance를 기대해 봅니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서인석(73)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51) 587-3212; ins9002@gmail.com.

Fashion Show 출연자 참가 신청

7:00 P.M. Jan. 20th (Friday), 2012

몇 년 전 이길녀 서울의대 동창회 전임 회장님을 모시고 대 성공이 났던 Fashion Show를 내년 초 Orlando에서 개최가 되는 Convention에서 재연을 할 예정입니다. 뜻있고 재미있는 concept로 관중들께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시는 couple 혹은 single 출연자들과 대상, 특별상, 인기상 외에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Halloween, wedding, engagement, dancing costume 의상들은 물론,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한국의 전통의상,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 등 여러 concept의 참신한 아이디어 또한 대 환영합니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Mrs. 광승용(71)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46) 400-1049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